

# 행복한 교육

**2017년 교육부, 이렇게 일했습니다**

꿈이 영그는 현장  
우리는 미래의 조리명장!

명예기자 간담회  
2017년 우리 교육을 말한다





02



06

# CONTENTS

VOL. 425 DECEMBER 2017

## 현장 이야기

꿈이 영그는 현장 부산관광고등학교	02
삶과 교육 정경열 대구논공초등학교 교사	06
이런 수업 어때요 충북 옥천동이초등학교 '작은 마을 꿈동이'	10
아하! 창의체험 서울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14
화제의 교사 송용성 광주 승의중학교 교사	18
에너지충전소	20

## 정책 이야기

<b>기획 I</b> 2017년 교육부, 이렇게 일했습니다	
유아교육, 국가가 책임진다	24
지능정보기술 기반, 미래형 인재를 키운다	26
특수교육 여건 개선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28
'자유학기제' 청소년의 꿈에 날개를 달다	30
고교 체제 개선으로 공교육 혁신	32
<b>기획 II</b> 명예기자 간담회	
2017년 우리 교육을 말한다	34
<b>초점</b>	40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	
<b>정책N전망</b>	44
나눔으로 여는 미래, 교육기부	
<b>정책 특(Talk)</b>	46
대국민 온라인 소통 누리집 '은-교육' 개통	
<b>정책카툰</b>	48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 정보 이야기

### 교육논단 학교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혁신학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50
학교 혁신을 위한 우리의 과제	52
혁신학교 현장 _ 부산 다행복학교	54
<b>명예기자 리포트</b>	57
예술치료 창작뮤지컬 '선택 여행' 외	
시도교육청 플러스_ 2017년 시도교육청, 이렇게 일했습니다	60
충남/대구/부산/세종/경남/인천/전남/대전	
<b>세계의 변화 교육의 진화</b>	64
Kidscape : 영국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자선단체	
<b>학급경영노트</b>	66
12월, 한 해 학급살이 마무리 하기	
<b>아이의 다락방</b>	68
화성에서 온 아이, 금성에서 온 부모	
<b>대학길잡이</b>	70
수능 이후 입시전략 노하우	



## 교양 이야기

<b>이야기 인문학</b>	72
두 편의 시가 자아내는 애뜻하고 행복한 기억들	
<b>일상의 심포</b>	74
2018 동계올림픽, 가자! 강원도로 ③ 평창편	
<b>뉴스브리핑</b>	78
자유학기제와 함께한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외	
<b>행복게시판</b>	80
구독신청 & 이벤트	



### COVER STORY

학생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음식이 오감을 자극한다.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게 너무 즐겁다.”는 부산관광고 명장공방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서정희 조리명장으로부터 숙련기술과 장인정신 등 맞춤형 기술전수를 받으며, ‘예비명장’으로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부산관광고등학교

# 우리는 미래의 조리명장!

부산관광고(교장 민용기)는 한식조리와 관광컨벤션 분야의 전문 인재를 기르는 특성화고등학교다. 명장공방에서 조리명장으로부터 숙련기술과 장인정신 등 맞춤형 기술전수를 받고있는 학생들이 예비명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매년 졸업생의 20% 이상이 글로벌 무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 01 부산관광고한식조리과학생들과 이재현 교사
- 02 제과제빵 수업
- 03 서정희 조리명장이 짜장면 만드는 과정 시범을 보이고 있다.



부산관광고등학교 명장공방 기술전수실에서 조리 실습에 매진하고 있는 이찬송(2학년 한식조리과) 학생은 2년째 서정희 조리명장으로부터 중식 요리를 전수받고 있다. 서정희 조리명장이 롤모델이라는 이 학생은 “한식, 중식, 일식을 섭렵한 후 해외에 진출해 한식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품고 있다.

#### 4년째 명장공방 운영, 맞춤형 기술전수

부산관광고가 서정희 조리명장과 인연을 맺고 명장공방 지원 사업을 펼친 지 올해로 4년 차. 부산관광고는 매년 1~2학년생 20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 서 조리명장으로부터 숙련기술과 장인정신 등 맞춤형 기술전수를 통해 예비명장을 육성하고 있다. 학교는 교내에서 체계적으로 기술전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실습실에 명장공방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충해 기술전수실을 갖추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중국요리의 이론과 실제』, 『한국조리의 이론과 실제』를 자체 개발하여 교재로 활용 중이다.

‘2012년 대한민국 요리 명장’에 선정된 서 조리명장은 부산지역에서 30년간 중식당을 운영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방과 후에 수타면 뽑기, 만두 빚기 등 중식요리기술을 집중 지도한다. 국내의 조리명장은 모두 11명, 그중에서 중식 분야는 서정희 조리명장이 유일하다. 서정희 조리명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중식 하나로 명장의 경지에 오른 과정을 아이들에게 종종 들려준다.”며 “명장공방에서 기술전수를 받는 아이들에게 꿈꾸는 만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한다.

초기에는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장과 함께하는 방과 후 수업’ 형태로 운영하였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지난해부터는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조리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서 조리명장의 중식 요리수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명장 없는 명장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여 기능사 자격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여기에 각종 박람회 및 지역봉사에 참여하여 중식 요리사로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부 ‘명장공방 지원 사업’이란?

공예, 섬유, 서비스(조리·제과제빵·수산제조), 농림, 건축, 금속, 기계 등 7개 분야의 명장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빈 교실에 공방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 7개교를 대상으로 시작된 사업은 올해 20개교로 확대되었다.



04



05

정미지 특성화 운영부장은 “명장님한테 중식요리를 배운 아이들이 지역주민과 나눔 차원에서 ‘만두데이’, ‘짜장면데이’를 열고 있다.”며 “학생들이 대접한 만두와 짜장면 덕분에 주민들과의 관계도 매우 돈독하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명장공방에서 중식요리를 익힌 학생들이 ‘명장 없는 명장 방과 후 수업(자격증)’과 학교 밖의 다양한 경험이 더해져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그 결과 명장공방 참가학생들의 자격증 합격률이 92%에 달한다. 교내 3학년 학생들 1인당 자격증 취득 수(1.1개)에 비해 명장공방 학생들은 1인당 3개로 높은 편이다. 또한 올해 졸업한 3학년생 12명 전원이 현재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해외인턴십과 파라다이스호텔, 롯데호텔 등에 전원 취업한 상태이다.

### 매년 50여 명 해외로 취업길 연다

명장공방 지원 사업과 더불어 부산관광고는 학생들의 해외취업률이 높은 학교로 유명하다. 1966년에 설립된 부산관광고는 2007년 특성화고로 전환한 이래 국제 경쟁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교육을 해오고 있다. 외국어교육이 대표적이다. 1학년 때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배우며, 2학년에 진학하면 하나의 외국어를 선택해 집중 이수하게 된다. 매일아침 전교생이 30분씩 외국어교육에 몰입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또한 입학초기부터 ‘글로벌리더반’을 운영하여 해외취업과 해외진학을 장려하고 있다. 교내

- 04 학생들이 시음료 만드는 과정을 익히고 있다.
- 05 관광컨벤션과 학생들의 교육훈련
- 06 부산관광고 전경
- 07 K-Move 스쿨 싱가포르 호텔외국 분야 취업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



06



07

에 글로벌리더반이 있다면 해외 프로그램으로 ‘해외직업체험연수’를 진행하여 매년 40여 명의 학생들이 해외직업체험과 어학연수를 통해 현장실무 위주의 외국어 회화 능력을 키우고 있다.

정정부 산학협력부장은 “관광컨벤션과는 외국어가 필수고 한식조리과도 관리자나 CEO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중요하다.”며 “어학연수와 해외직업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적으로 8년 전부터 해외직업체험연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매년 11월경 1~2학년 재학생 중에서 해외직업체험연수 대상자를 선발한다. 8~12주간 운영되며, 방학 때는 교사들이 현지에 나가 직접 학생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학교의 이런 노력으로 학생들의 해외진출이 매년 늘고 있다. 해외직업체험연수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중국과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매년 졸업생의 20%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올해에는 50여 명(25%)의 학생이 해외취업을 했으며, 2018학년도 졸업예정자 45명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진출이 예정되어 있다.

특성화고로 전환한 첫해였던 2007년에 부산관광고의 신입생 평균성적은 84.8% 수준이었다. 하지만 학교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발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가 되었다. 2012년에는 53%, 2017년에는 46%로 신입생의 평균성적이 매년 오르고 있다. 취업률도 매년 상승곡선을 이어오고 있다. 2012년(2013년 졸업)에는 41% 수준이었던 취업률이, 높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74%를 달성했다. 부산관광고의 도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 interview | 민용기 교장

66 선순환의 힘을 믿는다 99

Q 부산관광고가 타 학교와 차별되는 점은?

2007년 특성화학교로 출발하면서 학생들의 진로를 국내/국외 진출이라는 두 트랙으로 설정했다. 그렇다보니 외국어교육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소수의 학생이라도 글로벌 인재로 키워보자는 도전을 10년째 해오면서 지금은 뿌리를 내렸다.

Q 매년 졸업생의 20% 이상이 해외진출을 하는데, 노하우는?

‘글로벌리더반’을 운영, 신입생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언어가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철저히 가르친다. 여기에 매년 40명씩 어학연수와 해외직업체험을 겸한 해외직업체험연수를 8~12주간 경험하게 된다. 그밖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해외진출에 대

한 꿈을 키우고 있다. 이런 경험들이 선순환 되는 것 같다. 앞으로 3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 명장공방 사업이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외식조리과에서 한식조리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한식은 강화되었는데, 중식은 취약한 부분이 많았다. 서정희 명장과 인연이 있어 명장공방 사업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요리하는 학생들에게 ‘명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롤모델이 된다. 처음엔 명장공방으로 시작했는데, 점차 정규 교육과정으로 확대되면서 중식에서 퓨전요리로 확대되고 있다. 명장님을 롤모델 삼아 학생들이 한층 성장하고 있다.





정경열 대구논공초등학교 교사

# “교사는 아이들이 행복할 때 가장 빛나는 사람입니다”

01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 언뜻 당연하게 들리면서도 이를 교단에서 실천하기란 실로  
녹록치 않다. 그런데 여기, 지난 30여 년의 세월 동안 외길을 걸으며 이를 실천해 온 한 교육자가 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좋은 교사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02



03

- 01 우리 옛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정 교사는 평소 한복을 즐겨 입는다.
- 02 정 교사는 사물놀이부를 이끌며 직접 지도한다.
- 03 지난 30여 년간 만난 제자들이 담긴 사진첩
- 04 직접 만든 인형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6학년 담임반 아이들과 정 교사



04

아버지는 교도관이셨다. 기억이 희미한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죄를 지은 이들의 이야기는 늘 귓가에 머물렀다. 어느 날, 느지막이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어린 딸에게 들려줬다. 순박해 보이던 그 청년은 아버지가 고위공직자인 집안의 자제였다. 공부를 잘하던 형과 늘 비교 당했던 그는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형의 머리를 내리쳤고, 의도치 않은 죽음을 목격한 어머니마저 칼로 찢러 살해했다.

지은 죄는 너무도 무겁지만, 그 순간을 매일 자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린 딸 가슴에 내내 머물렀다. 늦기 전에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자라면서 점점 “행복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커나갔다. 그렇게 성장한 그 딸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무한긍정 썬파워’로 불리는 선생님, 정경열(54) 대구논공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31년 4개월의 교직인생이 그 때 그 마음을 간직하며 걸어온 길이라고 회고한다.

### ‘무한긍정 썬파워’ 선생님이 된 이유

얼마나 오래 보고 또 봤을까. 두툼한 앨범의 등이 낡고 헤질 정도가 되려면. 이 빛바랜 앨범은 정 교사가 이사할 때도 제일 먼저 챙긴다는 ‘보물 1호’다. 사진첩에는 교생실습을 나간 날부터 지금까지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모두 담겨있다. 유독 힘든 환경의 제자들과는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오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10년 상환으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과 학자금을 지원한 승환(가명)이, 힘들고 위축될 때 탁구채를 쥐어줬던 경진(가명)이는 어엿한 탁구 코치로 성장했다. 이젠 43살이 된 제자가 그의 탁구 선생님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부임하는 학교마다 어려운 환경의 친구들이 많았어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만난 건 오히려 행운이라고 할까요? 비록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충실하게 가꿔나가고 있지요. 이젠 만나서 술 한 잔씩 기울일 정도로 격의 없는 사이가 됐죠.”

그는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세파에 휘둘릴 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안식처, 어린 제자





05



06

- 05    논공초 4, 5학년은 사물놀이를 매주 1시간씩 배운다. 정 교사 부임 후 바뀐 변화다.
- 06    아이들 정서치유를 위한 푸드테라피 수업
- 07    교원극단 연극 '안티고네'에서 연기한 예연자 장면
- 08    담임반 아이들과 만나면 10년 후 만날 약속으로 만드는 타임캡슐
- 09    그동안 제자들이 보내 온 편지. 모두 모아 보관하고 있다.

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더 나아가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싶다고 한다.

그동안 모아온 제자들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그 노력의 일부분을 엿볼 수 있다. '학원에 다니는 모든 여학생이 예뻐서 공부 잘 되지 않는다.'는 귀여운 고민부터 '사업이 어려워 힘들다'는 풀기 힘든 숙제까지 정 교사에게 털어놓는다. 그는 그때마다 정성어린 답장을 쓰거나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에도 언제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 학부모들이 만점을 주는 선생님

올해 만난 오혁(가명)이는 감정조절을 힘들워 하는 아이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자리를 이탈하거나, 귀를 손으로 막고 괴성을 질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정신적으로 병약한 어머니는 아이의 이러한 성향을 더욱 부추겼다. 정 교사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시작했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식사도 하고, 학급 친구들이 오혁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날, 수업 발표 시간에 '연필이 없어졌다.'며 우는 오혁이를 모두가 어리둥절해 하자, 정 교사는 "연필이 없어진 게 오혁이에게는 정말 슬픈 일일 수 있어. 우리 모두 함께 찾아볼까?"라며 분위기를 가볍게 이끌었다. 아이들은 기꺼이 나섰다. 결국 연필을 찾아 환하게 웃는 오혁이를 보며 모두가 기뻐했던 일은 그에겐 작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1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오혁이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은 달라졌고, 오혁이 또한 조금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게 됐다.

"오혁이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지만, 제겐 항상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 아이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더욱 빛이 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말 한마디 안 하던 수진(가명)이 조금씩 말문을 열던 날, 수진이 어머니는 한 자 한 자 정성껏 그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 '수진이가 졸업이란 말만 하면 눈물을 글썽거린다.'며 '지난 1년은 수진이가 살아가는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소심한 아이가 있으면 격려와 자신감을 주길 바'



란다.’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 묻어나 있다. 그래서일까. 정 교사는 학부모 만족도 평가에서 매년 만점을 받고 있다.

“아이들의 입을 막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요.”

그는 2004년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담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은 여기서 더 나아가 대안교실에 관심을 쏟으며 ‘모든 아이’에게 다가가고 있다.

### 소외지역에 꽃 피운 문화예술교육

주변에선 그를 ‘천생 선생’이라고 한다. 예체능에 능하고, 배우길 좋아하는 성향이 초등학교 선생님에 ‘딱 맞다’는 것. 학창시절에는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적극적이고, 중학교 사격선수로 전국소년체전에 나가거나 고등학교 때 배구선수로 활약할 정도로 운동신경도 뛰어났다.

교대에 입학한 이후에는 취미로 태권도 동아리부에 가입해 지금은 공인 3단의 실력도 갖추고 있다. 학교축제 때 태권체조를 처음으로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고. 특히, 평소 우리 전통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판소리 명창인 이명희 선생님께서 부터 판소리 흥부가를 지도 받으며 놀부전 공연도 함께 했다.

이러한 그의 재능은 교직에서 더욱 꽃을 피웠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첫 발령지에서는 탁구부 아이들을 맡아 전국소년체전으로 이끌었고, 북부초등학교에서는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해 1998년 미국 캔사스주 태권도협회 초청으로 시범 공연을 펼치기도 했으며 또한, 국악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 가야금 병창부를 지도한 결과 아이들의 문화예술적 감수성은 더욱 풍부해졌다. 신서초등학교에서도 태권도부를 창단해 1년만에 전국소년체전에서 금·은·동을 휩쓰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논공초등학교에서는 사물놀이부와 연극부를 운영한 데 이어 지난해는 달성 다문화 어울림 소리단을 조직해 달성국악경연대회에 창조출연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대구시달성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국악경연대회에 참여해 최우수상을 거머쥔 실력과들로 성장했다.

“아침에는 차를 우려내고 아이들과 한 잔씩 마십니다. 토의·토론할 때 차를 가운데 놓고 이야기를 하면 다름이 없어져요. 학급 내에 고자질도 사라지게 됐지요. 문화적 예술성과 감수성은 어릴 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지난해부터 교육연극을 교단에서 실천하며 교사극단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내보이는 데 교육연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단다. “아이들이 화창하고 꾸미면서 자신을 솔직하게 내보이는 게 밋지 않다. 아이들이 쓰는 말을 함께 쓰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그는 요즘 진로교육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네 꿈은 뭐니?”에 머무르는 진로교육이 아니라 삶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꿈을 이루고 난 뒤 그 일을 하는 네가 행복한 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는 좋은 교사는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1980년대 참교육 운동에 불씨를 지피며 교사운동에도 헌신했던 그는 “아이들로 인해 가장 빛나는 순간”이야 말로 교사다운 삶이며, 자신이 가야할 길이라고 말한다. ㉠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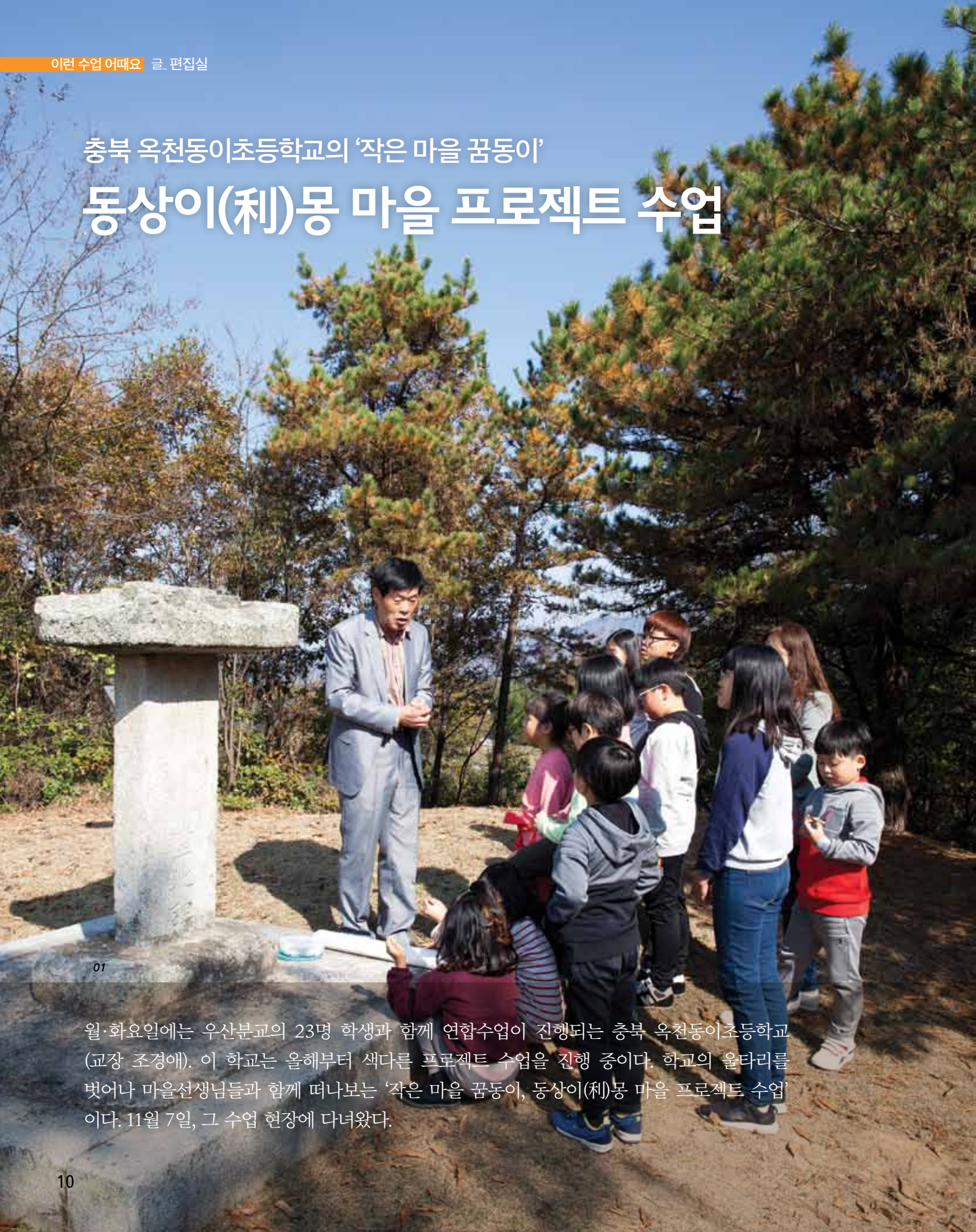
08

09



충북 옥천동이초등학교의 '작은 마을 꿈동이'

# 동상이(利)몽 마을 프로젝트 수업



01

월·화요일에는 우산분교의 23명 학생과 함께 연합수업이 진행되는 충북 옥천동이초등학교 (교장 조경애). 이 학교는 올해부터 색다른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 중이다.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마을선생님들과 함께 떠나보는 '작은 마을 꿈동이, 동상이(利)몽 마을 프로젝트 수업'이다. 11월 7일, 그 수업 현장에 다녀왔다.



###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충북교육청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물적·인적자원을 발굴하고, 마을교사 양성을 위한 체제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 2017년에는 이곳 옥천과 충주, 진천, 음성, 제천, 보은, 괴산 등 7개 지구에서 각각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곳 동이면은 훌륭한 선조들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예요. 임진왜란 때는 의병들이 나서서 마을을 지켰고, 또 구한말에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쓰신 민초들이 이 마을에 많이 사셨어요.”

이낙순(67) '마을선생님'이 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에 있는 망북비(望北碑, 국상을 당할 때 지방 유림들이 북쪽을 보며 절을 하던 곳) 앞에서 이 비석의 유래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옥천 동이초등학교 프로젝트 학습인 동상이(利)몽 마을프로젝트 수업시간. 막 설명을 마친 이 망북비는 1919년 고종 황제의 서거로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이 마을 유생 이기윤이 이곳에 올라 애도와 나라 걱정을 하면서 세웠다고 한다. 한 마을에 살아오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옛 선조들의 삶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귀를 쫑긋 세웠다.

동상이(利)몽 마을프로젝트 수업은 2017년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해온 행복교육지구 사업 참여 프로그램 중 하나다. 동이초교는 우산분교 학생까지 전교생이 총 65명인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지난 3월 조경애 교장이 부임하면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 내가 사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다!

“이 프로젝트 수업은 동이초교가 있는 평산리와 적하리·금암리·청마리 등의 문화유적지 탐방은 물론 동이면주민자치센터와 파출소를 비롯한 관공서와 향토기업 탐방 등 학생들이 학교 인근의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탐구활동을 하는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조경애 교장은 “지난 1학기 프로그램은 반딧불이 생태탐구와 블루베리 수확체험 등 탐구 대상 지역이 옥천군 전역이었던 반면, 2학기에는 주로 학생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동이면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수업은 각 학년별 담임교사 외에 마을이장과 학부모 등 특별 초빙된 '마을선생님'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망북비 체험활동을 지원한 이낙순 마을선생님 역시 동이초교 24회 졸업생이자, 이곳이 첫 부임지였던 전

01 이낙순 마을선생님으로부터 망북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아이들

02 03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탁본하는 아이들







04



05

직 교사 출신이다.

다시 망북비에서 진행되는 수업 현장. 마을선생님의 문화유적과 그 역사에 대한 이런저런 배경설명이 끝나고, 이번에는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탁본하는 체험시간이다. 박하나 학생(6학년)이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한 손에 든 떡방망이를 다른 손의 떡방망이로 툭툭 두드리며 떡물을 옮겼다. 이렇게 옮겨진 떡물은 방금 전 친구들이 비석에 붙인 종이 위를 툭툭 두드리는 것으로 글자가 새겨졌다. 이때 이낙순 마을선생님은 떡물을 이용한 탁본 방식인 습탁(濕拓)과 또 다른 방식인 유탁(油拓)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 04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행복교육 지구 사업은 학교 인근의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탐구활동을 펼친다.
- 05 동이초교 인근의 평산리, 적하리, 금암리, 청마리 일대의 현장 학습 결과물을 둘러보는 아이들
- 06 07 동상이몽마을 프로젝트현장 학습 발표회

### 마을선생님과 함께 무학년제 수업으로!

이 프로젝트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무학년제’ 과정이다. 학생의 거주지별로 모둠원이 구성되다 보니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고르게 분포하게 됐다. 이번 현장수업에 동행한 김광자 교감은 “6학년 언니와 형들이 1, 2학년 동생들을 서로 보살피 주고, 모르는 내용은 가르쳐주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 배려하는 마음과 협동심, 공감하는 능력도 함께 키워진 것 같다.”고 소개했다. 최정화 교무부장 또한 “한 마을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 등은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의외로 많지 않다.”면서 “1학년생들과 6학년이 손잡고 함께 걸으며 수업을 하니 그 효과가 배가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동이초교에서는 ‘동네 한 바퀴 이모저모’라는 이름으로 2학기 동안 진행해 온 현장 학습 발표회도 함께 진행이 됐다. 소강당에서 진행한 수업에는 학부모들도 자리해 학생들의 발표를 지켜봤다. 또 그동안 이 수업에 함께 한 마을선생님들에게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감사패도 증정됐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곳은 적하리팀의 마을여행. 6학년 박민우 학생은 “김태형(53) 마을 선생님의 안내로 충혼탑과 구휼비(救恤碑) 탐사를 다녀왔다.”고 소개했다. 민우 학생은 또 “적하리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된 이유도 처음 알게 되었다.”며 소개를 이어갔다. 구휼비는 1800



년대 후반 배고픔에 시달리던 이웃을 도운 김동시 어르신을 기리기 위한 비석. 학생들은 구  
 흥비의 유래를 들으면서 선조들의 이웃사랑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는 평산리 학생들의 마을 소개 차례. 이 팀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동이면주민자  
 치센터, 동이파출소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줬다. 또 체험 활동들을 영상으로 담아내 친구들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시켰다. 구글지도에서 동이면과 평산리를 영상으로 보여줘 친구들의 탄  
 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600년 된 수령을 자랑하는 느티나무가 있는 금암마을 친구들은 외  
 지인이 마을을 찾아오는 재미난 상황극으로 마을소개를 시작하면서 친구들의 웃음과 호응  
 을 이끌어냈다. 박혜진 우산분교장과 함께 23명 전원이 마을소개에 나선 청마리 팀. <우리  
 엄마는 요술쟁이>라는 동요에 청마리를 소개하는 노랫말로 개사해 노래공연을 펼쳤다. 박  
 혜진 분교장은 “청마리 축제에서도 23명 아이들의 그간의 활동이 소개되었다.”면서 아이들  
 의 활약상을 자랑했다.

### 학생들과 함께 ‘동이면 택리지’ 제작할 계획

동이초교는 올해 진행한 마을 프로젝트수업 평가회의를 거쳐 내년에는 사회과목의 교육  
 과정과 연계해 재구성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조경애 교장은 “동이면의 풍부한 인적자원  
 을 활용하면서 문화유적과 체험학습 교육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  
 했다. 발굴한 마을의 자료를 바탕으로 ‘동이면 택리지’를 제작해 수업자료로 활용한다는 계  
 획도 세워두고 있다. 좀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이번 2학기 프로젝트 학습을 위해 학교의 모든 선생님과 마을선생님이 지난 7월부터 머  
 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민했어요. 오늘 발표회의 표현활동에서도 전교생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어서 대견스러웠고요.”

조경애 교장은 이번 프로젝트 학습이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 커다란 문화적 자산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01

서울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 1만 원의 행복...

## 힘 모아 배우는 생생한 경제

“어서 와~ 뭐줄까?”

11월 10일 낮 12시 반, 서울 삼각산고(교장 최형철) 학교 매점 '먹고가게'는 학생들로 북적댔다. 삼각산고사회적협동조합 심수진 사무국장, 박정옥 매니저가 두 줄로 선 학생들을 질투 없이 맞으며 만면에 웃음을 띠었다. 먹거리를 판다기보다 엄마가 딸·아들을 환대하는 분위기다. “맛있게 먹어~” 이 말 끝에 심 사무국장은 한 여학생의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얼굴이 핼썽한데 어디 아픈 것 아냐?”라고 말을 건넸다.





02



03



04

- 01 서울 삼각산고사회적협동조합 학생 조합원들이 학교 매점 '먹고가게'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먹고가게'는 협동조합이 직영한다.
- 02 삼각산고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학교 매점 '먹고가게'에서 먹거리를 사고 있다. '먹고가게'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팔지 않는다.
- 03 세계시민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세계시민 약속을 담은 메모지가 주렁주렁 달린 조형물을 단장하고 있다.
- 04 발명동아리 '소구발' 학생들이 우간다 여학생들을 위해 만든 '우리 모두 나무를 짊어지게'

##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학교 매점

8평짜리 작은 매점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교육하는 공간이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아예 입고하지 않는다. 2학년 연시연 양은 “학생들의 건강에 해로운 물건은 안 판다. 공정무역으로 들어온 캔디류를 살 땐 제3세계 아이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뿌듯하더라.”고 했다.

학교협동조합은 매점 운영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먹거리 교육과 사회적 경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을 파는 매점은 학생보다 학부모들이 더 반긴다. 바른 먹거리, 착한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직영을 반기는 부모들이 많다.

이날 오후 시간에는 학교협동조합 동아리를 비롯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이뤄졌다. ‘소구발’(소외된 구십퍼센트 사람들을 위한 발명동아리)은 서너해 동안 청소년발명대회에 출전만 하면 입상할 만큼 실력과 동아리다. 지난 11월에는 제6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청소년 적정기술 경진대회에 4개팀이 나가 2개팀이 입상했다. 딸감나무를 모으느라 고생하는 우간다 여학생들을 위해 만든 ‘우리 모두 나무를 짊어지게’는 대걸레와 가방끈, 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지게다. 학생들은 또 노숙자들을 위해 겨울철 낮에 패딩으로 입다 밤에는 침낭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도 만들어 상을 받았다.

세계시민학교 동아리 학생들은 직접 만든 2m짜리 조형물 ‘목(木)소리’ 단장에 한창이었다. ‘친구와의 만남은 공정무역 카페에서’ ‘물 절약’ 등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약속을 담은 메모지가 나뭇가지마다 걸려 있었다. 곧 1층 출입구로 옮겨 크리스마스 사흘 전에 점등할 예정이란다. 진로직업실에 가보니 학교협동조합 동아리 학생들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한창 토론을 벌였다. 때마침 진로 탐색차 온 인근 성암여중 학생들도 초롱초롱 눈빛을 빛내며 동아리 활동을 참관 중이었다.

## 출자금 1만 원씩 모아 일군 기적

삼각산고는 혁신학교로 유명하다. 학교협동조합이 이 학교에서 맞을 올린 것도 우연이자 필연이다. 이전에 매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수익 악화를 이유로 철수한 후 논의가 본격화됐다. 협동조합에 관심이 컸던 학부모와 교사, 지역주민들

이 불을 지폈다. 2014년 12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출자금 1만 원씩 내고 조합원에 이름을 올렸다. 초대 이사장은 학부모 장이수 씨(현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회장)가 맡았다.

창립 3년도 안 돼 조합원 265명, 연 매출 1억 원의 탄실한 학교협동조합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20%나 성장했다. 질 좋은 식품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팔고, 수익은 전액 조합 활동과 교육 사업으로 환원한다. 특히 조합원 중 학생이 155명으로 60% 가까이 된다. 학교 매점 ‘먹고가게’를 직접 네이밍한 이들이 협동조합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청년 창업가를 꿈꾸는 학생 이사 이다는 양은 원래 군인이 되고 싶었다. 이 양이 창업으로 진로를 튼 것은 협동조합 경험 덕이다. 졸업반인 지금까지 2년간 이사로 활동하면서 경영에 특별한 흥미를 느꼈고, 사관학교 대신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이 양은 그간 학생 이사로 학교 공부로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해왔다. 입시에 집중해야 할 수험생이 협동조합에 꾸준히 참여한 것은 살아 있는 경제 공부라 됐기 때문이다. “학생 이사들은 이사회 참여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관계해요. 매점 신메뉴를 정할 땐 시식회 후 인기 식품을 직접 조사하고, 협동조합 사업 예산 책정부터 연말 손익결산까지 모두 어른들과 같이 해요.”

이 양은 “협동조합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 수평 관계다. 학생 이사들도 당당히 의견을 밝히고, 어른들도 우리를 존중해준다.”며 “협동조합 정신은 곧 평등”이라고 말했다.

### 생생한 경제 교육으로 알찬 공부

입시교육에 갇힌 학교현장에서 교육경제공동체인 협동조합이 일군 성과는 크다. 우선 삶에 기반한 생생한 경제 교육을 해왔다. 조합 분과인 창업재무부에선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물건이나 재능을 하루 동안 판매하는 창업을 지원한다. 학생들은 협동조합을 직접 운영하면서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다양한 경제 활동을 직접 체험한다. 또 타인을 배려하는 협력과 자립심을 키우고,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민주주의 훈련도 받는다.



05



06

05 \_\_ 황경숙 삼각산고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06 \_\_ 삼각산고사회적협동조합 학생이사들이 동아리 시간에 올해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7 \_\_ ‘소구밭’ 학생들이 올해 청소년 적정기술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발명품을 앞에 놓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삼각산고사회적협동조합이 매년 두 세 차례 여는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다른 학교가 벤치마킹을 하러 올 만큼 유명하다. 지난 10월 열린 2학기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선 자율동아리 ‘권리등대’의 페미니즘 굿즈뿐 아니라 천연스크럽제, 페트병 화분 등 7팀이 사회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백설공주도 먹고 반한 사과파이’ ‘탱글탱글 사워젤리’ 등 네 이팅부터 학생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참가자들은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서류심사, 면접심사 PT 후 수정, 물품 구매, 부스 운영, 최종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배웠다. 삼각산고 협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차우승 서울시 청년혁신활동가는 “경쟁률이 세다보니 PT 때 탈락해서 우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라며 “수익금의 10%는 불우이웃돕기에 쓰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외부에 프리마켓도 나간다.”고 전했다.

황경숙 이사장은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려면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한데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협동조합에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비조합원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게 뿌듯하다.”고 말했다. 당연한 문제를 창의적 방





07

08 조합이 주관한 아트페어에서 학생 경매사가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경매하고 있다.

09 페트병 2,500개를 재활용해 만든 '그린하우스'



08



09

식으로 해결하는 체인지 메이커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알찬 공부를 한다는 얘기가.

### 교실 혁신을 넘어 마을 혁신으로

학교협동조합은 교실 혁신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사회적경제 단체들과 교류하고, 사회적경제 장터에 참여해 부스도 운영하면서 지역과 사회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삼각산 지역 내 생협과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5개 단체가 가치를 공유하는 워크숍도 하고, 친목도 다지는 삼바학교(삼각산 바꾸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특특히 성과를 냈다. 유정희 연구부장은 “다른 학교보다 협동조합 프로젝트가 많은 편”이라고 자랑했다. 학생들로 구성된 2SCOOP 동아리가 싱크탱크다.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두루두루 맡으면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미술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한 아트페어에서 학생들이 만든 엽서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쓴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경매하고 미술체험 부스 운영, 천연염색 체험 등 미술축제 한마당으로 꾸미고 있다. 페트병 온실인

‘그린하우스’는 조합원들이 주변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분리수거장에서 직접 구한 페트병 2,500개를 재활용해 확장 공사를 마쳤다. 업사이클링부터 목공까지 두루 체험하면서 그만큼 경험의 폭도 넓어졌다.

학기말에 여는 ‘나도 선생님’ 프로젝트도 자랑거리다. 학생들이 교탁에 서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교육을 한다. 또 자원 순환을 위해 졸업생들로부터 교복을 기부 받아 후배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한다.

차우승 활동가는 “협동조합의 거점인 매점은 물건을 사고 팔고 소비할 뿐 아니라 건강, 돌봄 기능도 한다.”며 “학교에서 문턱이 가장 낮은 공간인 매점이 중심축으로 잘 받쳐주면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학생들과 바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카페테리아가 있어 화려한 쉼터 역할을 하는 다른 학교와 달리 이 학교 매점은 8평으로 다소 적다. 하지만 학생들이 문구류, 화장실 휴지 등 필요할 물품을 구하러 오거나 자녀가 두고 간 물건을 부모가 갖다 주러 오는 등 행정실보다 더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학교협동조합의 버팀목이 됐다는 것이다. ②

송용성 광주 송의중학교 교사

# 스포츠면 ‘스포츠’, 봉사면 ‘봉사’

## 열정을 현실로 만드는 선생님

지난 10월 30일, 광주광역시 송의중학교(교장 김호중)에 스쿼시팀이 창단됐다. 중학교로서는 전국에서 최초의 팀 창단이다. 지난 3년 동안 이 종목의 팀 창단을 위해 애써온 송용성(52) 체육교사의 땀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스쿼시는 아직까지 전국소년체전에서 치러지는 경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학교에서 이 종목의 팀 창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체육활동에서도 좀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는 게 송 교사의 설명이다.

송 교사는 학생들의 즐거운 체육시간을 위해 플로어볼, 추크볼 등 새로운 종목들을 꾸준히 수업에 적용시켜왔다. 스쿼시팀 창단에 앞서서는 학교 주변의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등 동아리활동만을 계획했었다고. 그런데 스쿼시 종목에 대한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하고부터는 아예 선수나 지도자 양성까지 내다보는 팀을 창단하게 된 것이다.

현재 송의중 스쿼시팀은 6명의 선수단으로 출발했다. 선수들은 광주월드컵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염주종합체육관에서 매일 방과 후 한두 시간씩 연습에 참가한다. 요즘에는 주로 민첩성과 순발력 향상 등의 기초훈련과정 단계다. 스트로크 등 보다 전문적이고 정교한 기술연마는 외부강사인 유공선 코치의 지원을 받고 있다.

### 스쿼시 전국대회 3위 내 입상이 1차 목표

“겨울방학 기간에도 쉬지 않고 동계 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장 2018년 봄부터 열리는 전국 규모의 중등부 스쿼시 대회에서 3위권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제 막 출발선상에 서 있지만, 선수들에게 하면 된다는 동기부여와 뚜렷한 목표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게 할 계획입니다.”

송용성 교사는 광주지역에서 소문난 ‘봉사쌤’이기도 하다. 1991년 교직에 몸담은







02



03



04

**01 03** 3년의 노력 끝에 학교 스쿼시팀 창단을 이끌어낸 송용성 교사

**02** 송의중학교 스쿼시부 창단식

**04** 학생들과 함께하는 연탄봉사

이후 줄곧 RCY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붙여진 별명이다. 지난 10월에는 농촌사랑 일손돕기 봉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함께 고구마 캐는 농촌현장에 다녀왔다. 또 11월에는 해마다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에도 참여한다. 송의중 학생들만 참가할 때는 적게는 30여 명, 또 광주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 등 연합팀과 함께 할 땐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한다. 3년 전부터는 송 교사의 자녀들도 직접 동참하면서 이른바 ‘가족봉사팀’도 새로 꾸려졌다. 자녀들이 1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2,000장의 연탄을 홀로 추운 겨울을 나아 하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달한다.

“처음엔 아들만 데리고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배달이 끝나면, 머리가 땅에 닿도록 감사인사를 건네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죠.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 더욱 의미 있는 연말연시를 보내줬구나 하면서 가족 모두가 동참하게 되었죠.”

### 광주지역의 소문난 ‘봉사쌤’

송용성 교사는 광주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하면서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 <광주교육연구>지에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광주지역 중등학교의 봉사활동 참여도 늘어나고, 점차 가족단위의 봉사로그 외연도 확장될 수 있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학습과정”이라고 말하는 송용성 교사. 즉,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정신적·심리적 성숙에 기여하고, 새로운 지식의 습득으로 지적이고 활동적인 자극으로 자신을 더욱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한다.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배우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깨닫는 등 사회적·교육적 측면의 효과도 크다고 말한다.

체육교사로서 요즘 그가 꾸는 꿈은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학교체육이 건강한 생활체육의 가교를 놓는 큰 틀을 디자인해 나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

## 영주시청소년도시참여지원단

## 아이들과 손잡고 낙후된 구도심 재발견

쇠퇴한 구도심을 경제·사회·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이라 한다. 경상북도 영주시에는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에 청소년들이 적극 나서서 참여하고 있다. 물론 학생들은 도시재생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려 할 때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다. 또한, 어른들의 '학생들이 뭘 할 수 있겠어?'와 같은 편견에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영주시 청소년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연구회가 바로 영주시청소년도시참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다. 여기에는 영주시 관내 초·중·고 교사, 교육전문직, 대학교수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원단은 크게 도시참여단, 교육봉사단, 황금시대방송국, 근대역사체험관 등 4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원단은 영주시 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한다. 청소년 동아리에서는 그간 영주시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한 후 소논문을 작성하여 지역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였다. 또한 1940~50년대 경제적 전성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낙후된 영주시 후생시장 재건에 동참하고, 인근 마을가꾸기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교육봉사단은 후생시장 인근 '골목공부방'을 운영하며, 지역 내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교육지원을 담당하였다. 교육봉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황금시대방송국은 지역의 10개 중·고등학교 방송반 학생들이 주축이 된 방송국이다. 후생마을 주민과 청소년들이 세대 간 커뮤니



티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제작 및 참여 방송으로 건전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영주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영남방송(채널 3번)으로 송출되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지원단 사업 중 인기가 높은 사업으로, 올해는 황금시대방송국 방송반 모집에 영주지역 17개 학교가 참여할 정도로 성황이다. 영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학생 팀방프로그램 영주근대역사체험관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영주의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해 지원단과 학생들이 후생시장 내에 계획 중인 공간이다. 영주시 후생시장을 방문하면 황금시대방송국, 영주근대역사체험관, 골목오락실, 골목공부방, 환경 정비를 위한 벽화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도시참여지원단은 지난해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하는 지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영주시청소년도시참여지원단의 활동은 학교 밖 그리고, 사회 속 교사와 학생들의 역할을 고민하고 도전한 시간이었다. ㉠

글. 하현우 명예기자(울진고등학교 교사)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대상 : 초·중·고 교사, 교육전문직, 대학교수

☆ 대표 : 김유경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054-805-3503)



## 경기도 보건교사 흡연예방 뮤지컬팀 '금연파라솔'

# '금연은 사랑을 타고' 무대 위 열정 가득

"아빠, 담배 꼭 끊으세요! 저는 절대 안 피울게요." 아이의 간절한 기도에 아빠가 담배 모형을 부러뜨린다. 담배 모형이 '뚝~' 하고 부러질 때 아이들의 환성과 박수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이기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금연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을 멋지게 금연송으로 부르는 선생님들. 이들을 보는 아이들의 얼굴엔 즐거움이 가득했다.

2016년 3월, 경기도 화성과 수원지역에서 열정이 있는 보건교사 8명이 흡연예방 뮤지컬팀인 '금연파라솔'을 결성했다. 뮤지컬 경험이 없는 순수한 아마추어들로 이뤄졌지만, 현대적 음악극인 뮤지컬의 기본을 서로 익히고 표현하며 흡연예방을 위한 뮤지컬 제작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2~3일에 한 번씩 모여 대본을 짜고 소품도 만들면서 밤 10시가 넘도록 준비한 결과 '금연은 사랑을 타고' 시나리오와 무



대를 완성했다. 2016년 11월 경기 입북초에서 첫 공연을 올린 후 8명의 금연파라솔팀 교사들은 소속 학교를 찾아 순회공연을 진행했다. 이제는 소속 교사가 근무하는 8개 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금연파라솔' 뮤지컬팀을 결성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다음은 '금연파라솔' 보건선생님들과의 일문일답

### Q 흡연예방 뮤지컬팀을 만든 이유

A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흡연예방 효과를 높이는 교육 방법을 고민하다 흡연예방 뮤지컬을 착안하였다. 아이들과 친숙한 선생님이 직접 공연을 하면 교육 효과가 더욱 클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다.

### Q 뮤지컬 시나리오의 어떤 내용인가.

A 오랫동안 흡연해 병을 얻게 된 아버지가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고, 이를 응원하는 아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음악은 '지금 이 순간'을 비롯해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렛잇고'(겨울왕국), '썸머나이트'(뮤지컬 그리스), '오피스코리아' 등 유명하고 친숙한 곡들을 선택했다.

### Q 앞으로 계획

A 지역 학교들의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흡연예방 뮤지컬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도 나가면서 점차 공연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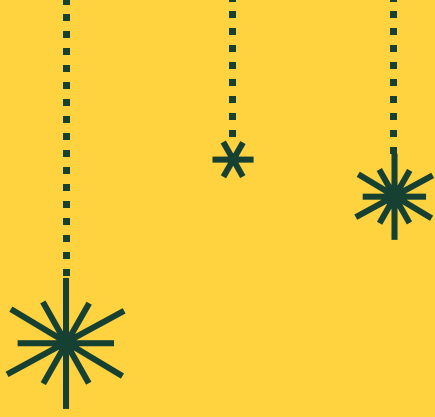
파라솔이 햇빛으로부터 사람들을 시원하고 편안하게 지켜주듯 금연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금연파라솔'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

글\_ 천아영 명예기자(원중초등학교 보건교사)

📍 지역 : 경기 수원·화성

👤 대상 : 보건교사

☆ 대표 : 백순희 입북초등학교 보건교사 ☎ 031-294-4870



# 2017년 교육부, 이렇게 일했습니다

교육부는 올 한 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생애초기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넘어 자유학년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밖에도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고교 체제 개선 등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 2017년 교육부가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을 정리하였다.

01

유아교육, 국가가 책임진다

02

지능정보기술 기반,  
미래형 인재를 키운다



# 2017



03

특수교육 여건 개선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04

‘자유학기제’ 청소년의 꿈에 날개를 달다

05

고교 체제 개선으로 공교육 개혁



# 유아교육, 국가가 책임진다

글. 하유경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최근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교육 경험의 차이를 해소하여 ‘생애초기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OECD도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발달은 5세 이전에 대체로 완성되어 이후의 학습과 삶의 질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므로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2년부터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모든 아이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으로 이제 유아교육기관 취학율은 OECD 수준을 뛰어넘는 약 93%에 이르고 있다.

이제 교육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하여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달성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국·공립 유치원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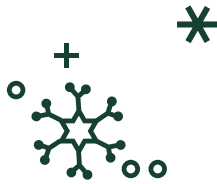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여 OECD 평균(68%, '14년 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비율(24%, '14년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업은 의무설립 지역과 이외의 지역을 구분하여 추진되는데, 택지개발지구 및 저소득층밀집 지역 등 의무설립 지역은 국·공립 단설 위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기타 구도심 등 지역은 유아 감소를 고려하여 초등 유휴교실을 활용한 병설을 우선 설치·증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7만 명 이상의 유아들이 추가로 국·공립 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게 하여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가정이 겪는 학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의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저소득층 유아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공·사립 유치원 간 학부모 부담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가정이 겪는 학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17년 유아교육 월평균 학부모 부담액은 국·공립 1만 2천 원, 사립 21만 7천 원이다.

기존의 서울, 세종, 충북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되었던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을 정원 100% 범위 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자녀로 우선 모집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과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 e음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가정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보하였다.

###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유치원이 유아의 건강과 안전 등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는 유치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 수준을 나타내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인증과 지원을 하게 된다.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는 2018년도 일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0년부터 전국 시·도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등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공·사립 유치원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도 추진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유아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 관련부처 및 유치원 현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 지능정보기술 기반, 미래형 인재를 키운다

글 정윤경 교육부 융합교육지원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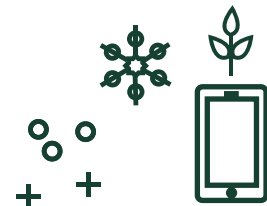
인공지능(AI) 등에 기반한 지능정보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하는 역량 있는 인재의 양성은 이제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소프트웨어교육과 STEAM교육을 강화하고 미래형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감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융합형 인재 양성

먼저,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의 핵심역량으로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정보문화소양’을 제시하고, 공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교육을 필수 교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교육은 하드웨어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에서 벗어나 ‘사고력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모든 학생이 초등학교는 ’19년부터, 중학교는 ’18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교급의 수준에 맞는 소프트웨어교육을 배우게 되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소프트웨어교육을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교원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인프라 확충, 우수교육모델 확산 등 전반적인 교육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프트웨어 연구·선도학교 1,200개교 운영과 2만 명 이상의 교원에 대한 연수 등으로 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실시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감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융합형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교육부는 개별 교과목의 벽을 넘어 창의융합교육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





## 교육부는 개별 교과의 벽을 넘어 창의융합교육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의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STEAM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과 실생활의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의 약칭)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STEAM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토론, 발표 등 학생 중심 수업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융합형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대학·출연연·기업 등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의융합 연구·선도학교와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운영하여 학교에서 학생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STEAM교육과정을 일반학교에 확산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STEAM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으로 사고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선도학교와 무한상상실 등의 확대를 더 많은 학생들이 STEAM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사회 인재 양성 위한 학교 환경 개선**

이러한 소프트웨어교육이나 STEAM교육과 같은 교육 내용 및 활동에서 나아가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환경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초·중학교에 무선인프라망과 단말기를 보급하여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및 소프트웨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ICT와 연계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AI에 기반한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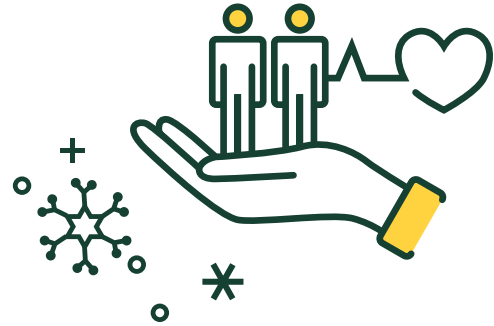
이처럼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정보사회에 부합하도록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환경까지 변화·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창의적·융합적 역량을 발휘하여 미래사회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②





# 특수교육 여건 개선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글. 이한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2017년 5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갔으며,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밀착형 지원을 하였다. 특히, 특수교사 증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다양화 및 취업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 특수교육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

2017년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특수교사 증원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사 증원은 가장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09년 이래 최대 규모인 1,173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하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17년 기준 67.2%에서 73.6%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일반학교에 통합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2018년 특수학교 자유학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가 현장

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자 연수, 자유학기 활동 교수·학습자료 개발, 컨설팅단 운영 등으로 자유학기제 담당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 밖에 장애인 일자리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범국민 장애 인식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과 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올바른 장애인식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학교 차원의 장애인해교육을 넘어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전국 규모 행사인 '제3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을 개최하여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과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고 호소하는 엄마들의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 2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260학급을 신·증설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 수를 고려할 때





2017년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특수교사 증원이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여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특수학교 신설 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특수학교 설립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교육부는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장애대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도우미 지원도 2016년 2,850명에서 2017년 3,0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도우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체감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이 개정(16.5.29.)됨에 따라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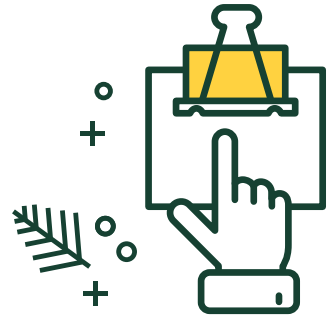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특수교육 여건을 확대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5개년의 특수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부처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㉞





# ‘자유학기제’ 청소년의 꿈에 날개를 달다

글. 이상돈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학기제란 특별함을 시간낭비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경험을 쌓으며 시간을 보낸다면 과연 그것이 시간낭비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경험을 쌓으며 보낸 자유학기를 통한 나의 경험과 느낌들은 분명 나를 올바른 어른으로 키워주리라 믿는다.”

2016년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공모전에 응모한 서울의 한 중학생의 이야기이다.

2013년 42개의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학교가 자유학기제 운영을 희망하는 등(2014년 600교 계획 811교 운영, 2015년 1,500교 계획 2,551교 운영) 학교 현장으로부터 그 확대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일부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취지에 공감하며 한 학기를 넘어 나뉘는 자유학년제로 확대·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반응은 자유학기를 통해 학생과 교사는 진정한 배움과 나눔의 공간으로의 교실을 되찾게 되고, 학교는 그 배움의 과정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고민한 결과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는 자유학기제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 확보 제공

자유학기제의 중심은 수업과 평가의 변화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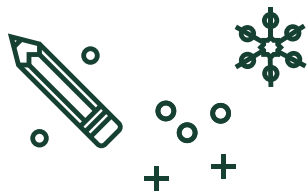
찾고 진정한 공부의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교사는 이런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과정에 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개별학생을 관찰하며 그 변화의 과정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한다. 교과시간뿐만 아니라 주제선택, 동아리, 예술·체육, 진로탐색 활동으로 이루어진 자유학기 활동 역시 교과와 연계되어 학생들의 더 깊은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도록 운영된다. 이러한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 모르고 있던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의 확보는 자유학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질 높고 안전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 및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중소도시 학생들을 위해 서울대, 카이스트 등 전국의 우수대학과 연계하여 약 3,500명의 학생에게 제공한 1박2일 진로탐색캠프를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의미 있는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원격영상진로멘토링이나 진로체험버스 등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의 약 3,200여 개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는 시·도교육청과의 협력과 지역별 특색을 살린 운영 지원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작년과 올해 각각 9개 교육청에서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여 타 교육청과 공유하였고, 내년에는 11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우수사례



자유학기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 모르고 있던 자신의 장점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를 공유할 예정이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교의 수업과 평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도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 등을 통해 발굴하여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공모전을 통해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교사·학부모와 학교를 지원한 기관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발굴하여 확산하고 있다.

### 2018년 전국 1,500여 개교 자유학년제 운영

2018년에는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자유학년제가 운영된다. 전국의 약 1,500개(전체 중학교의 45.8%)가 운영을 희망하였고, 광주·경기·강원 교육청은 전면 시행 예정이다. 자유학년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정비하며 시·도교육청과에서는 자유학년에 참여하는 1학년 교과 내신 성적의 고입 미반영을 조기 예고할 예정이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 그리고 스스로 참여하며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아는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가진 학생들의 에너지로 소란함이 자연스러운 자유학기의 교실. 그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성장에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찾고 자긍심을 갖는 '대한민국 선생님들'. 교실 혁명을 선도한 자유학기가 앞으로도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며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할 것이며 온 나라가 함께 관심과 손을 잡아주기 바란다. ㉠





# 고교 체제 개선으로 공교육 개혁

글. 심민철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교육부는 지난 11월 2일 고입 동시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입 동시 실시는 현재의 고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여 우수학생 선점효과를 완화하고 나아가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고입 동시 실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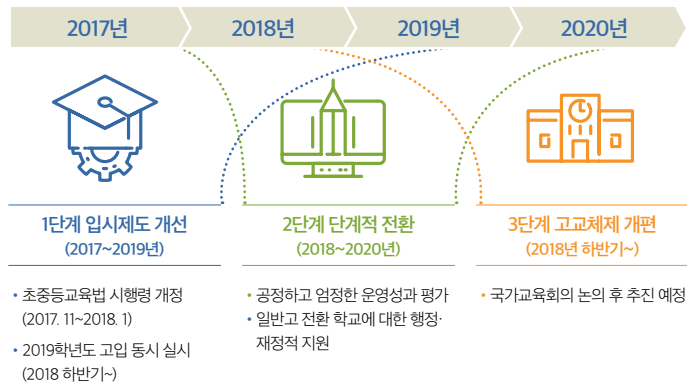
먼저, 선발 시기가 변경된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는 전기모집 학교로, 그 외 학교는 후기모집 학교로 정하고 있으나 '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전기모집 학교에서 외고·국제고, 자사고가 제외된다. 즉, 외고·국제고, 자사고는 후기에 일반고와 입학전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간의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추가 선발 및 배정이 변경된다. 현재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선발 및 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학생배치계획상 필요한 경우로 거주지 이전 등과 관련한 경우가 많고, 불합격한 학생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입 동시 실시 이후에는 추가 선발 및 배정을 통하여 외고·국제고, 자사고 불합격생을 구제할 수 있다. 현재와 동일하게 미달되어 추가선발을 진행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음은 물론,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교육감에 입의 배정 동의서를 제출하여 불합격 시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다. 즉, 예전처럼 외고·국제고, 자사고에 불합격 하더라도 원하는 일반고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인근 학



표. 고교 체제 개편 로드맵



고입 동시 실시,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 고교 학점제 등을 추진하여 일반고에서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군 일반고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 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중전과 동일하게 추가 선발을 진행하는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재지원할 수 있다. 이는 고입 동시 실시에 따라 비자발적 재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일종의 제도 보완 장치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전형방식, 학생선발권, 지원방식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고입 동시 실시 이후에도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학교장은 학생선발권을 가지고, 기존대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외고·국제고, 자사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1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고, 일반고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은 1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고, 평준화 지역은 지망에 따라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

교육부는 고입 동시 실시를 추진하면서 이와 더불어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표 참조>과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고입 동시 실시를 통하여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등한 환경에서 입학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 고교 학점제 등을 추진하여 일반고에서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자사고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미달 자사고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는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고입 동시 실시는 고교 체제 개편의 첫 단계이며, 이를 시작으로 우리의 초·중등교육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㉓



## 명예기자 간담회

# 2017년 우리 교육을 말한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교육개혁이 가속화되면서 학교 현장은 얼마나 변화했을까. 2017년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취재해 온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이 모여 현장에서 느낀 변화와 기대를 이야기했다.



일시 2017년 11월 17일(금) 오후 4시  
장소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  
총괄 김지선 교육부 교육연구사  
사회 이순이 본지 편집장  
정리 한주희 본지 기자

### 현장 명예기자단 및 패널

- 김경민 상계초등학교 교사
- 김재윤 전주교육대학교 대학생
- 이 희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대표
- 최석원 학부모
- 하헌우 울진고등학교 교사
- 한명숙 수원서광학교 교감
-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
- 최기수 교육부 홍보담당관
- 김영재 교육부 교육연구관



**주명현** 2017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교육계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향한 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이어나가며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 자유학기제는 더 확대되어 자유학년제로 안착된다. 또한, 2020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앞으로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모쪼록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란다.

###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한 공공성 강화

**이 희**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기대가 크다.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항상 연초에 부모들의 걱정이었다고, 최근 잇따른 유치원 파업 또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상승시켰다. 예산 지원에 대한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향이 제시되기를 누구보다 희망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온종일 돌봄 체계가 보다 내실화되길 바라고 있다.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규모 확대, 돌봄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고민이 필요하다.

**최기수**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포함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6년 전부터는 3~5세까지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 체계는 돌봄을 위한 사회망 구축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보다 내실화된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한술에 배부르기 쉽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석원** 사교육에 대한 문제는 망국병이라고 할 만큼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

니다. 다만, 학부모에게 공교육 이해와 관련한 의식 전환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쉽다. 부산에서도 학군이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학습이주와 선행학습으로 인한 교육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학부모가 있고, 이들의 의식을 바꾸는 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지선**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교·국제고 신입생을 일반고와 같은 날 선발하는 고교 동시 선발이 실시된다. 고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 입시교육 위주의 분위기가 완화되면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고른 기회의 평등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민** 유치원 입학 지원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도입으로 많은 부모들이 편리하게 적합한 유치원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참여율 저조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현장에 안착되길 희망한다. 유아 때부터 안심하고 공교육에 들어오면, 교육비 경감은 물론 입학할 때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이 쌓인다. 공교육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사라질 것이다.

###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으로

**사회자** 공교육 안에서도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이 희** 자유학기제 실시로 꿈과 진로에 대한 많은 생각과 성찰의 시간이 학생들에게 주어졌다고 본다.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의 약 46%에 해당하는 1,500여 개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희망하는 건 더욱 고무적이다. 또한, 진로체험 등 학교교육에만 머무를 수 없는 영역이 중요해지면서 마을교육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들이 눈에 띈다. 지자체별로 이어지는 마을교육박람회와 지자체-교육청의 협업 등 공교육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피부로 체감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다.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이 칸막이를 걷고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는 사례는 좋은 본보기다. 다만, 지역 간 교육격차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한명숙** 장애학생들도 꿈과 끼가 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는 일반학교보다 특수학교가 더 크다. 시범학교 학부모들의



66 고교학점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앞으로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99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



〇〇 사교육에 대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 중심에 학부모가 있고,  
이들의 의식을 바꾸는 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99

최석원 학부모



〇〇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등록금과 주거비다.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다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99

김재윤 전주교육대학교 대학생

만족도도 매우 높지만 장애학생은 체험처로 이동하는 일부터 쉽지 않다.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인력과 예산은 더 필요하다.

**최석원** 부산은 혁신학교에서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의 혁신학교인 ‘다행복학교’는 2015년 10개교에서 올해 43개교로 늘어났으며 5년 내로 16개 전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유치원도 포함돼 있다.

**김경민** 혁신학교가 한 두 해 지나면서 최근에는 ‘공감형 혁신학교’가 거론된다. 공개된 교육 현장을 서로 보고 공감하면서 스스로 변화한다는 의미다. 변화가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온 교사들이 ‘우리도 한 번 해보자’ 하는 분위기다. 혁신학교 운영이 물론 쉽지 않지만,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 의식이 바뀌면서 사교육비도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자** 올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2학년에 도입됐다.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교육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김경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연극이 강화되고 있다. 상계초 5~6학년은 예술 강사를 활용한 연극 수업을 이미 하고 있다. 20차시 이상 진행되면 몸과 얼굴, 대사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늘어 담임교사들의 만족도가 높다. 소프트웨어(SW)교육의 교사 연수도 크게 늘었다. 다만,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실질적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현우**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의 효율적 전달과 성취 중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중심을 두고 6가지 핵심역량을 도입했다. 고교 현장에서는 이에 발맞춰 학문 간 융합수업이나 통합수업,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 아울러, 과정중

심평가도 시도하고 있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가 과다하고 평가에 대한 신뢰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시동

**사회자**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은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문제다. 특히, 올 하반기 특수학교 건립 난항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한명숙**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모습은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특수학교, 학급을 늘리고 5년 간 18개교를 신설한다는 약속은 고무적인 일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장애인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채용이 범으로 규정된 정원 3%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인이 된 이후 체계적인 평생교육이 이뤄진다면, 진로에 대한 장애학생 부모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다.



〇〇 혁신학교로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이를 보고 경험한 교사들이  
'우리도 한 번 해보자' 하는 분위기이다. 99

김경민 상계초등학교 교사



〇〇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는 일반학교보다  
특수학교가 더 크다.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인력과 예산은 더 필요하다. 99

한명숙 수원서광학교 교감

**김영재**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5차 계획에는 장애인의 직업·진로교육이 더욱 강조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 직제 개편에 있어서도, 특수교육 직업·진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명숙** 사회적 약자의 생활양식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진 후,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을 돌봐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의 경우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일이 많아 토요일봄교실 등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에 위탁 운영하고, 학교는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 희** 시민단체에서도 재능기부 형태로 돌봄이나 방과후 교실에 참여하고 있지만,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난감하다.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중심이 된 플랫폼이 구축돼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면 좋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담당 공무원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현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 전형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그만큼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대학 입시의 한 방편으로 인식 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더군다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면, 보이지 않는 차별과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대학마다 상이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어디까지 왔나

**사회자** 올 한 해 교육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끊임없이 대두됐다. SW교육, 융합교육 등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하나.

**하현우** 얼마 전 경상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1만동아리 대축제에서는 드론 체험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로봇을 활용한 로봇베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예전에는 드론과 로봇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만큼 교육 현

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근무하고 있는 울진고도 예전처럼 문과/이과를 구분 짓지 않는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보면, 과학동아리라고 해서 1년 내내 실험만 하지 않는다. 실험 과정을 자신의 철학으로 엮어 책으로 출판하는 등 인문학적 사유를 이어간다. 밝은 면도 있지만 기대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SW활용 능력이 낮다는 건 문제다.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양과 편의성 면에서는 그 어떤 매체보다 탁월하지만, 고급 정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적 활용도는 낮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SW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김재운** 인프라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전라북도는 PC 노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SW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교사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교과 중심으로 된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교육 관련 과정으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SW교육 관련 커리큘럼도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





〇〇 교육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99

하현우 울진고등학교 교사



〇〇 100세 시대 평생교육은 진정한 시민 역량을 기르는 후속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9

이 희 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대표

**김영재** 앞으로 가르칠 아이들은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시차로 접근해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결국 코딩도 알고리즘에 의한 논리적 사고를 배우는 일이다.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은 결코 기능을 배우는 일이 아니다. 서로 협업하면서 문제를 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배우는 데 치중하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생겨나고 있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다. ICT 발전에 따른 비인간화,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하현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체험과 참여형 교육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예전처럼 책상 앞에 오래 앉아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다. 현재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제는 자유학기제를 넘어 직업체험이나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정규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사회자**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수립한

이래 교육 현장에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어떻게 느끼나.

**김경민** 우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학급 단위 또는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 수송버스 음주 측정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한 두 해 전만해도 음주 측정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할 경찰서와 도착지 경찰서에서 적극 협조해 안전 운행을 돕는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공모사업학교 학교선택제의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지원'을 필수 사업으로 정해 학교에서 매년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 교사 또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받고, 초 1~2학년은 주당 1시간씩 64시간 동안 '안전한 생활' 교과를 배운다. 매주 1시간 이상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한 후, 자전거 탈 때 헬멧을 착용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길 건널 때 주위를 살피거나, 비오는 날 우산 쓰는 방법을 알고 조심하려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3~4학년의 생존수영 지도로 안전의식이 크게 높아졌다.

**대학가에 부는 창업 바람과 산학협력**

**사회자** 대학가에서는 청년 취업난, 인력 미스매치 등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과 산학협력이 활발하다.

**김재윤** 최근 달라지고는 있지만, 대학 창업 등이 기대만큼 높지는 않다. 현재는 정부나 학교 주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안정된 직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조금씩 싹트는 대학가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산학협력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해야 하는 곳이 대학이다. 산학협력단 하나의 기구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학 전체가 산학협력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최석원** 고졸 취업과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는데, 학교문화와 운영 시스템 혁신을 지원하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사업'은 특성화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선취업-후진학'에 대한 학부모들



〇〇 한술에 배부르기 쉽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〇〇

최기수 교육부 홍보담당관



〇〇 앞으로 가르칠 아이들은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시차로 접근해야 한다 〇〇

김영재 교육부 교육연구관

의 인식 저변도 넓어지고 있다.

**사회자** 급변하는 사회에서 평생교육은 필수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도 활발하다.

**이희** 선취업 후진학을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이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지만, 평생교육 중심의 대학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잘 살아나지 못하는 건 아쉽다. 개설되는 강좌의 프로그램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 등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여는 시민강좌들이 인문교양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시민 역량을 기르는 후속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석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K-MOOC)는 서울대, 카이스트(KAIST) 등 국내 유수의 대학의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양한 주제로 500여 개의 강좌가 개설돼 있는데, 무엇보다 양방향 소통도 활발하고 피드백이 좋았다.

**김경민** 100세 시대 평생 '교육'이 필요한 시대에는 학부모들의 직업관과 자녀가 갖게 될 직업과는 큰 차이가 있으리라 본다.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직업'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간의 갈등이 작지 않은데, 앞으로는 자녀를 인세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학부모 교육도 평생교육 시대에 꼭 필요하다.

**한명숙** 장애학생들도 졸업과 동시에 배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특수교육기관의 공간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교육민주주의 회복에 거는 기대

**김경민** 학교가 희망하는 '지원'은 좋지 만, 의무 조건이 있는 지원 또는 기관 간의 중복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한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마라톤 경기 하듯이 꾸준히 현장과 정책구현 기관 간

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하현우** 지방별 교육자치 강화를 통해 교육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근무하는 경상북도 지역의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중 2017년을 기준으로 폐교된 중등학교가 1,350교나 된다. 교육자치를 통해 각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기준과 규정이 있다면,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이다.

**김영재** 지난 한 해 교육의 변화와 앞으로 기대에 대해 현장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현재 교육부도 자유학년제 확대와 연계해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준비하며 '수능을 잘 치기 위한 교육'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 교육을 이뤄나가기 위해 내 아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한, 교육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의 말씀들도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부도 현장과 소통하며 바른 정책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 VR·홀로그램·드론... 여기 다 있네 혁신으로 더 나은 교육을 상상하다







“우와~ 내가 조선시대에 와 있어”

가상현실(VR) 안경을 쓰자 조선시대가 눈앞에 펼쳐졌다.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 속으로 직접 들어가 당시 문화와 역사도 엿본다. 활쏘기, 붓글씨, 기와 던지기 등을 손끝으로 느끼니 배움도 더 즐겁다. 학생들은 “눈앞에 역사가 보인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는 ‘혁신을 위한 상상력, 교육의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교육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자리였다. 교육부 주최,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초·중·고등학교, 시도교육청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 약 217개 기관이 참여해 다채로운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전시관은 크게 혁신교육, 진로·직업, 자유학기제, 미래교육, 융합교육, 교육복지 등 7개 존(zone)으로 나뉘어 20개 주제 전시관과 각종 체험·전시 부스로 꾸며졌다. 무엇보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3D프린터,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험 학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혁신학교 운영 사례부터 인성교육, 학생자치활동,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는 물론, 대안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교육을 상상해 보는 자리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대입상담관을 비롯해 총 20여 회의 포럼과 세미나가 열렸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홍보관 등도 마련됐다.

01 이번 박람회에는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 약 217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02 기중기를 실제와 똑같이 컴퓨터로 구현한 가상 시범 운행

03 그리면 입체가 되는 3D 스템펜 체험

04 색을 인지하는 오조봇을 통한 코딩 체험



05



06



07

05 자유학기제관에는 12개 부스에서 상상·재미·감동을 주제로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소개했다. 자유학기제관 대형 조형물

06 디지털 교과서로 모의투표를 하는 사회과 수업을 시연 중인 원이중 교사와 학생들

07 가상현실에서 지진 대피 안전교육 체험

08 백석고 학생들이 창업으로 만든 시제품을 선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09 빔 프로젝트로 모래 위에 곤충을 보여주는 증강현실 체험



08



09





10



11



12

- 10 \_ 수학의 구조물 안 시각자전거 체험
- 11 \_ 이동식 안전체험 차량의 자동차 안전벨트 체험
- 12 \_ 다문화 교육에 앞장서는 대불초 전시 부스
- 13 \_ 청산중 드론 체험 부스
- 14 \_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컬링 체험



13



14



# 나눔으로 여는 미래, 교육기부

글. 이정규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자유학기지원실장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교육기부가 우리 모두의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학교 밖의 많은 기업,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단체와 협회가 우리 학교 안의 교육을 돕고자 합니다. 따뜻한 교육기부는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꿈과 끼를 키워주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학교 밖의 온 마을 공동체에 존재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에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육, 연수, 직업체험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재화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 작품 기부, 시설 기부, 교육체험환경 기부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2011년 말 기반 마련… 대학·기업 등으로 빠르게 확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1년 12월 ‘교육기부센터’로 지정되면서 교육기부 사업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2년 3월에 국내 최초로 국내외 교육기부 콘텐츠를 소개하는 매머드 교육기부 행사인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와 함께 교육기부 참여와 활성화를 다짐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공동체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교육기부의 기부자와 수요자 간에 자연스러운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가득한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교육기부 운동도 현재 약 3만여 명의 대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평일에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알락달락 행복한 교실’, 대학생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이야기를 담은 토요일 프로그램 ‘함성소리’, 방학 동안 캠프 형태로 소외지역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돕는 ‘쓱쓱캠프’, 초등돌봄교실에 운영되는 ‘돌담 봉사단’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부에 참가하는 기관이 빠르게 늘고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육기부 활동을 체계화하며 참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포털([www.teachforkorea.go.kr](http://www.teachforkorea.go.kr))’을 개설했습니다.

한편, 2013년 중반부터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시작을 위한 다양한 준비활동도 전개되었는데 이것과 맞물려 교육기부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자유학년제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진로체험 교육기부에 동참할 인적·물적 자원을 축적하는 동시에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함께라서 행복한 교육기부!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포털 운영

<http://www.teachforkorea.go.kr>



###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 내용

<p>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 교육기부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활동 지원</li> <li>교육기부대상</li> <li>교육기부 인증제</li> <li>교육기부 추진협의체</li> <li>교육기부 업무협약(MOU) 체결</li> </ul> <p>교육기부 질적 제고 및 활동분야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기부 컨설팅 제공</li> <li>교육기부 지역센터, 거점대학 운영</li> </ul> <p>대학생 교육기부 주제 활용 기회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생 교육기부단 운영</li> </ul>	<p>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 교육기부 수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기부 수요 · 공급의 효율적 매칭 지원</li> <li>교육기부 포털사이트 운영</li> </ul> <p>학교 현장 연계형 체험 전시장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li> </ul> <p>지역별 교육기부 확산 활동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하반기 교육기부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 제공</li> <li>시·도 교육청(지원청)의 교육기부 확산 지원 (도네이션스쿨 운영)</li> </ul>
---	--



### 교육기부 운영 내용

<p>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유시설 프로그램 및 이를 가공한 교육자원 제공</li> </ul> <p>개인재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 예술 · 체육 교육, 진로멘토링, 강연, 자원봉사 등</li> </ul> <p>첨단시설 및 장비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험시설 · 공간, 실험 기자재, 기구 등을 무상으로 제공</li> </ul> <p>활동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험 프로그램 · 동아리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 제공</li> </ul> <p>콘텐츠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의 · 사진 · 영상 등의 문화 · 지식 콘텐츠 제공</li> </ul>
---

## 교육기부의 미래, '지속가능 가치' 창출

이밖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삼성, 롯데, 현대자동차,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기업 40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26개, 한국무역협회, 월드비전 등 협회·단체 27개, 상명대학교, 강동대학교 등 95개 기관과 교육기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매년 교육기부 인증제,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는 12월 14일(목)부터 17일(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130여 개의 다양한 교육기부 기관이 참여해 첨단기술의 거리, 문화의 강물, 빛나는 산마루, 꿈꾸는 동네, 생명의 숲길, 신나는 광장, 미래를 향한 길 등의 테마로 전시장이 꾸며질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한 지역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체험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세기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기존의 학교 교육은 한계에 직면했으며 이에 따른 교육 주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기부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가치창출(CSV) 모델로서 공교육 현장에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대국민 온라인 소통 누리집, '온-교육' 개통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경청”

교육부에서는 지난 10월 25일 대국민 온라인 소통 누리집 '온-교육'(www.moe.go.kr/onedu.do)을 개통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미래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함께 교육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해 나가는 교육소통 플랫폼 '온-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편집실>

## Q 대국민 온라인 소통 공간인 '온-교육'을 만들게 된 취지는 무엇인가요?

기존 '광화문 1번가',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등 소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대면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시공간적 제약이 따릅니다.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미래교육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미에서 교육소통 플랫폼 '온-교육'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 Q '온-교육'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온-교육의 '온'은 교육에 관한 모든 것, 열린 자세, 따뜻한 인간애 등을 의미합니다. 모든 교육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따뜻한 공간,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이 소통되는 열려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Q 그동안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통' 문제가 불거져왔는데요. '온-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까?

먼저 '온-교육'에 새 정부의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를 다양한 콘텐츠로 자세히 소개해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6대 국정과제를 인포·모션그래픽, 카드뉴스를 통해 각각 설명하며 국정과제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스토리텔링 형식(웹툰, 연재형)으로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누구나 다양하고 자유로운 생각을 제안할 수 있도록 분야별(유아·초등·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토론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발제와 함께 토론방을 개설하고 참여자는 제안에 대해 댓글을 통해 관련된 의견 또는 찬반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제안자, 참여자는 물론이고 SNS 공유 기능을 활용해 해당 토론을 대중에게 널리 확산시키고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

-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 미래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은 토론이나 건설적 제안에 대해서는 실·국장은 물론이고 담당 실무자까지 정책 환경 및 방향, 제안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등을 직접 설명토록 할 예정입니다.

**Q**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정책 제안자, 참여자의 입장에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은 토론이나 건설적 제안에 대해서는 실·국장은 물론이고 담당 실무자까지 정책 환경 및 방향, 제안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등을 직접 설명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발굴 및 주요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기 위한 여론수렴도 진행합니다. 여론수렴은 제시된 주제 안에서 자유롭게 답하거나 주어진 문항을 선택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여의견에 대한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쌍방향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Q** 누구나 쉽게 '온-교육'에 접속하여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면 합니다만.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였으며, PC와 모바일 등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친 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온-교육'(www.moe.go.kr/onedu.do)에 들어오셔서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국민들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죽고 싶다...' 한 아이의 노트에 써 있던 이 한마디가 초보 선생이었던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평소 구김 없이 밝아보였던 아이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는 척을 해야 할지, 혼잣말처럼 적은 글이니까 모른척 해야 할지... 저부터 혼란스러웠답니다.

힘들어 하는 아이에게 전 일기처럼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은 고민이 있을 때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힘이 되었단다. 괜찮다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점심시간, 아이와 학교 뒤뜰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자신의 희망과 달리 의사가 되라는 부모님의 강요와 학업스트레스로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고민에 대해 부모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 하는 줄은 몰랐다면, 앞으로는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물어봐 주고, 아이 입장에서 공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건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아이는 내 진심을 받아 주었습니다.

아이의 아직 부모님이 믿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좋았다는 말을 수줍게 남기고 3학년이 진학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 생명존중 교육자료 e-book 사용

① 학생건강정보센터(<http://schoolhealth.kr>) → '2017 생명존중 교육자료 e-book' 검색

② 주소창 입력 <http://ebook.co.kr/hst/hallym/index.html>



교육논단

# 학교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혁신학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혁신을 위한 우리의 과제

혁신학교 현장 \_ 부산 다행복학교



# 혁신학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글.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학력비교평가(PISA)에서 우리나라는 늘 최상위의 성적을 거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는 한국을 따라 배우라고 권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이 최하위에 속한다는 보고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공부를 잘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지만, 그 시간을 고통으로 느끼는 학생들,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소통보다는 경쟁에 익숙한 학생들이 많은 나라의 교육을 따라 배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변화, 혁신학교

2009년 9월 경기도의 13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된 혁신학교 정책은 이와 같은 과제를 제도교육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당시 경기도의 제1대 민선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교육 개혁과 경쟁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혁신학교를 내세웠다.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서 보았던 것처럼, 학생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새로운 교육을 고민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학교의 변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혁신학교 관련 연구에서는 혁신학교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다. 먼저 혁신학교는 학교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혁신학교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 교장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학생과 학부모도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교원들과 동등하게 회의에 참석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학교의 비전과 목표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협력적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은 여느 학교의 교육과정과 매우 다르다. 여느 학교의 교육과정이 국가에서 정해 준 것을 따라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은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학생들의 협력적 배움과 성장이다.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동료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의 핵심이다.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전통적 학력의 손실 없이 대안적 학력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점도 성과다. 필자가 경기도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혁신학교는 수능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학력의 손실 없이 학생들의 자아개념이나 효능감 같은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높이고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삶의 태도를 갖도록 했다. 또한 일반학교에 비해 혁신학교 재학생들의 내재적 학습동기, 교사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혁신학교는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일반학교에 비해 혁신학교에서는 가정배경에 따른 성적 차이가 작았으며, 가정배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혁신학교에 다닐 경우 일반학교에 다닐 때보다 성적이 향상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교에 비해 혁신학교에서 학생중심수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교사-학생 사이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혁신의 가능성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는 양적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2011년에는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혁신의 초기부터 처음에 설정한 단기 목표를 달성한 다음의 목표가 무엇이어서 하는지를 고민할 때 가능하다. 이 목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대담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2015년에는 충남, 충북, 경남, 부산, 세종, 인천, 제주에서 일부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가 거듭될수록 혁신학교의 수를 늘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혁신의 가능성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가 그 자체로 학교 혁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혁신학교는 교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핵심 동력으로 하는 데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학교의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늬만 혁신학교’라는 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학교나 교사의 준비 정도나 자발성을 고려하지 않고 혁신학교의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 간판만 혁신학교로 달아 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학교에서는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철학과 운영 원리에 기반하여 학교 전체를 혁신하기보다는 혁신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혁신학교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때 학교 혁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혁신학교가 일부 구성원의 교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학교 혁신에 헌신했던 교사들의 소진 현상이나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혁신학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혁신은 제안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고, 지속하기는 극도로 어렵다고 주장했던 하그리브스의 논의를 되새길 때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학교 혁신의 두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트랙은 기존의 혁신학교가 거둔 성과가 일반학교로 전이되도록 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혁신학



교가 거둔 성과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단기목표에 가까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혁신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학교가 거둔 성과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학교가 그 원리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트랙은 공교육 정상화의 수준을 뛰어넘는 미래 모델학교로서 혁신학교의 상을 설정하고, 그 실현가능성을 실험해 보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혁신학교는 지정 연차와 관계없이 비슷한 목표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혁신학교는 수만 늘어날 뿐 한국 공교육의 지속적인 혁신 모델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지속가능한 혁신은 혁신의 초기부터 처음에 설정한 단기 목표를 달성한 다음의 목표가 무엇이어서 하는지를 고민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 목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주도면밀하게, 그러나 대담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이 그 마지막 시기다. ㉠

# 학교 혁신을 위한 우리의 과제

글. 박철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이전부터 교육정책에서 혁신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학교 현장에서 통용되는 혁신은 혁신학교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혁신학교는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하였는데, 2014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다수 당선되면서 공교육의 혁신 모델로 확산되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하였지만, 그 이전에 혁신학교의 모델이 되는 학교들이 이미 몇몇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혁신학교는 교육청이 먼저 개발하고 추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자발적 학교 혁신 운동이 교육청의 정책으로 채택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 개혁 또는 교육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전의 학교 정책과는 다소 다른 점이다. 이전의 학교 개혁 정책은 학교 밖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사가 개혁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대상으로 되는 경향이 있어서 교사들이 학교 변화에 능동적으로 앞장서기 어려웠다. 반면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자발적 움직임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형태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교사의 자발성을 정책 추진의 기본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교사와 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현재 서울형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 빛고을혁신학교, 무지개학교, 행복더하기학교 등 시·도교육청에 따라 사용하는 명칭도 다르고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혁신학교의 특징들은 기존의 학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기존 학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의 중심에는

소외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교사가 교사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학생이 학생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사와 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학교 현실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일이고, 그것을 보람으로 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는 교사들이 이와 같은 삶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이 되지 못하였다. 상당수의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다. 또한 교육 관료제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학교, 그 속에서도 끝단에 위치한 교사들은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기보다는 대리인의 위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주로 수행해 왔다. 이는 교사가 주체적,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소극적, 피동적으로 임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스스로 결정한 일을 추진할 때는 능동성을 발휘하지만, 다른 사람이 결정한 일을 단순히 집행하는 입장이 되면 수동적, 소극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혁신의 움직임은 학생들이 배움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는 학교로 바꾸어보려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많은 혁신학교가 교사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사결정권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교사들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행동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본질적으로 배움이 본연의 일이고, 배움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와 같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며 생활해 왔다. 오히려 지루함과 고통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그 주요 이유는 학생들의 경험세계와 긴밀하게 관련을 맺지 못하는 교육과정,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학생들은 부동자세로 앉아서 장시간 집중해야 하는 수업방식에 있다. 자신의 생활 세계와 의미 있는 연관을 갖지 못하는 내용에 관심과 흥미를 갖기 어렵고, 관심과 흥미가 없는 내용을 장시간 부동자세로 듣는 것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구속감과 고통을 유발하기 쉽다.

### **진정한 '혁신'을 위한 과제**

혁신학교에서 교과중심의 일제식 수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학교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배움중심 교육과정, 대화와 활동이 있는 수업 방식, 서술형 평가 등은 학생들이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배움의 기쁨과 보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혁신의 움직임은 학생들이 배움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는 학교로 바꾸어보려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교 혁신의 흐름이 지속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다. 첫째, 더 많은 교사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 초기 몇몇 학교들이 혁신학교로 운영될 때는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가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철학과 가치를 지닌 교사들이 혁신학교와 만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학교를 지지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혁신학교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흐름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성향을 지닌 교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학교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입시와 학력경쟁의 산을 넘어가야 한다. 혁신학교의 확산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어려운 이유가 대학입시라는 큰 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 방식이 현재 대입 경쟁에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가에 대한 확신을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혁신학교가 고등학교로 쉽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혁신 고등학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 적합한 혁신학교 모델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대입전형제도의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새로운 혁신의 비전과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혁신학교들은 대체로 민주적 학교 운영, 교육과정의 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의 과제를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과제들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고착된다면 언젠가 혁신학교는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학교 현장의 요구,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혁신을 계속 추구해나갈 때 학교 혁신은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혁신학교 현장 부산 다행복학교

# 재미있는 두레 활동으로 행복한 우리

현재 전포초등학교(교장 정창호) 학생 수는 380명이다. 전교생 380명 모두가 예순 두 개 두레로 구성되어 있다. 두레원은 1학년부터 6학년 까지 각 학년에 한 명씩 대부분 여섯 명이지만 다섯 명이나 일곱 명인 경우도 있다. 2016학년도에 한 선생님이 교사다모임에서 전교생을 두레로 묶어서 활동해 보자고 제안했다. 두레 활동은 동료 선생님들의 걱정 반 기대 반 속에 시작되었고,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전포초등학교 전체 학생 두레 활동은 함께 먹기와 함께 놀기 둘로 나뉜다. 함께 먹기는 ‘두레 밥상’ 활동이고, 함께 놀기는 전포놀이마당(협동 놀이 활동)에서 두레끼리 함께 노는 것이다.

두레 밥상은 영양교사가 협조하여 한 달에 한번 차려진다. 두레 밥상이 있는 날 점심시간에 학생들은 두레끼리 학교 여러 곳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서 함께 급식실로 간다. 6학년 학생은 두레장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고, 후배들은 선배를 따른다. 교사가 나서서 두레 활동을 통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생님들은 두레가 급식실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자리를 정해 준다.

지난 5월에도 작년에도 열린 전포놀이마당에서 학생 두레는 학교 운동장과 시청각실에 마련된 딱지치기, 수호천사 피구, 구슬치기, 신문지 올라가기 등 10여 종목 코너를 찾아다니며 놀이

를 즐겼다. 두레는 코너에서 코너로 이동할 때는 두레원 모두 손을 잡고 이동했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항상 함께했다. 놀이 종목은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와 교사다모임 그리고 학생·학부모·교사로 구성된 전포놀이마당 TF팀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었다.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는 두레 활동과는 별도로 6학년과 1학년, 2학년과 1학년으로 이뤄진 책 읽는 두레 활동도 있다. 매주 화요일 아침활동 시간에 6학년 선배 한 명 한 명은 1학년 교실로 찾아가서 후배 한 명 한 명에게 책을 읽어 준다. 금요일에는 2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 교실에 찾아가서 책을 읽어 준다.

그래서 전포초등학교 도서관은 책을 고르는 선배들로 월요일 아침 시간과 목요일 아침 시간이 특히 붐빈다. 2학년 선배와 1학년 후배는 짝을 맞춰 함께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한 달에 운동장에서 비석치기, 하늘땅 놀이, 팽이치기와 같은 공동체 놀이도 한다.

“어, 이 책은 오빠가 읽어줬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하는 학생들과 “아이들끼리 서로 배우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라는 선생님이 이야기에 전포초등학교 우리의 행복한 배움이 담겨 있다. ㉠



01



02

01 6학년 1학년 책 읽어주기  
02 두레 밥상

# ‘성찰회의’로 새로운 관계 맺기



01

**연산중학교**(교장 이학도)는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19학급 규모의 남자 중학교로, 2015년에 다행복학교로 지정되어 3년째 운영 중이다. 부산 다행복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학교문화를 바꿔나가고자 하는 혁신학교다. 이에 연산중학교는 학교 교육의 중심에 아이들을 두고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갑니다. 공감과 배려로 더불어 성장합니다.’를 실천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연산중학교는 오랫동안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큰 학교로 인식되어 모두가 기피하는 학교였다. 교직원들은 이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혁신의 방향을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 만들기’로 정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1년 차에는 따뜻한 아침맛이,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로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는 띄웠으나,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학생을 학교생활의 주인으로 세우 자치활동과 엮어내기 어렵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그래서 2년 차에는 학생 생활지도부장의 역할을 나누어 학생자치부장을 신설하였다. 3년 차인 올해는 학생들이 생활의 ‘지도’ 대상이 되는 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힘들고, 교사의 어려움도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학년 중심으로 돌봄이 이루어지

는 생활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차가운 생활지도에서 따뜻한 생활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각 학년 고유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는 돌봄의 교육을 위해 무담임 학년부장을 두기로 했다. 좀 더 밀착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중심을 두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학교구성원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돌봄을 위해 시작한 성찰회의는 잘못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과 공동체의 성장과 변화를 목표로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성찰회의는 민주적인 소통이 가능한 자리로 아이들에 대한 정보와 개개인의 사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아이들의 문제를 그저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 문제를 성찰하고 아이에게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 자리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선생님들께 나쁜 놈으로 찍혔구나.”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다. 교사들은 물리적인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긴 하지만 아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중간에 어긋나게 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관계 맺기를 경험하고 있다. ②



02

01 \_\_ 학교카페에서 열린 학급DAY  
02 \_\_ 영어과 전체 제안 수업





01



02

## 자치활동으로 **쑥쑥** 크는 아이들

무늬만 자치활동! **만덕고**(교장 김병산)에 부임하고서 그동안 근무했던 학교에서의 자치활동들은 자치 흉내만 내던 자치활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덕고 자치활동의 출발은 3월 초에 열리는 자치학교이다. 교사 주도로 열리는 간부수련회와는 달리 자치학교는 학생회 임원들이 직접 기획하여 1박2일간 운영한다. 학생회 부서대표 7명은 각 부서의 연간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한다. 학생회 부서들 중 교육부만 살펴보면 토론대회를 계획하고 운영하며, 공부 인터뷰 진행과 게시, 학생의 날 관련 정보 게시물 제작, 학술전 ‘늘숨제나’ 기획 및 운영, 교육부 통신문 제작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부서가 연합하여 활동하기도 하는데, 봉사부와 학예부가 함께 한 ‘만덕마켓’이나 총무부와 자율부가 함께 한 학생회 임원들의 자율정화 활동인 ‘내사규칙 제정’ 등이 올해의 대표적인 활동들이다.

만덕고 학생들의 자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준 상징적인 활동이 지난 11월 10일 열린 대토론회다. 대토론회는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는 자치활동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치열하게 논의하고 최종적으로는 투표로 결정한다. 대토론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3주체가 각각 안건을 제출하고, 3주체가 함께하는 규정개정위원회에서 의제와 투표 결과의 반영 비율도 결정한다.

이번 토론회의 안건은 ‘등교시간 조정: 8시, 8시

30분, 9시’와 ‘휴대폰 자율화’였다.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의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층마다 각 안에 대한 의견을 적어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토론 모듬 사회자들을 선발하여 토론회를 이끌 수 있도록 2주에 걸쳐 훈련하였다. 그리고 각 의견을 지지하는 학생 1명과 교사 1명을 발제자로 하고, 발제 영상을 제작하였다. 토론 모듬은 사회자 1명과 학생 10명, 교사 1명, 학부모 1명을 기본으로 구성하였고, 학생들은 각 교실과 매화관(강당)에서 주제 발제 영상을 본 후 그 주제에 대해 35분간 토론하고 다음 주제 영상을 보고 다시 35분간 토론하였다. 이후 매화관에 모두 모여 각 모듬에서 나온 논거들을 공유한 후 투표를 하였다. 등교 시간 조정은 과반수를 얻은 안이 없어 ‘8시’ 안과 ‘8시 30분’ 안으로 결선 투표를 하여 ‘8시 30분’ 안이 최종 선택되었다. 휴대폰은 대부분의 학생이 자율화를 원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결과는 반대 더 많아, 일부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결과가 맞는지 서로 재확인해 보기도 하였다. 특히 토론이 끝나고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들은 학생들의 진지한 토론 태도에 놀라는 모습들이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모두가 수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만덕 아이들이 3년째 다행복의 울타리 안에서 자치활동을 하고 토론식 수업을 해오면서, 생각하는 힘과 토론하는 힘이 부족 자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⑦

01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는 대토론회

02 발제 영상 시청과 조별 토론

# 명예기자 리포트



교직원, 학부모, 대학생 등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땀과 희망으로 써내려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편집실>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들의 기사 전문과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 예술치료 창작뮤지컬 ‘선택 여행’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배상선) Wee센터는 11월 3일과 4일 오후 4시 한국잡월드 나래울 극장에서 창작뮤지컬 ‘선택 여행’을 공연했다.

이번 공연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통합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개발하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남 관내 중·고등학생 24명이 참가했으며, 양일간 나래울 극장 350석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성황리에 공연이 열렸다.

공연 내용은 학교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자유’, 친구들을 외면하는 아웃사이드 ‘앗싸’, 약한 친구들



을 괴롭히는 ‘대장’,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수지’가 등장하여 학교를 벗어나 시간여행자와 함께 미래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이야기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학생 창작뮤지컬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6년간 지속되어 온 예술 활동(안무, 보컬, 연기, 뮤지컬, 공연)

과 심리·정서 치료를 접목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자존감 향상과 진로개발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_ 강호섭 명예기자(보정초 교직원)

## 행복을 가꾸는 '바탕교육 한마당'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3년간 추진해 온 바탕교육이 교육 현장에 잘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탕교육 한마당'이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열렸어요.

군악대의 개막 축하공연으로 시작하여 대전 초등학교의 끼와 재능을 보여주는 동요 부르기, 바탕교육 사진전과 UCC 상영도 하고, 수학창의놀이, 다문화교육, 놀이통합교육, 바탕교육, 효(인성)교육, 독서교육 등 바탕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운영되었어요.

바탕교육이란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고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기초 교육을 탄탄히 하고자 밥상머리 인성교육, 정리정돈 하는 생활,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 등을 가정에서 실천

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바탕교육 실천주간에는 학교에서 밝고 맑은 동요 부르기 등의 활동도 하지요.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바탕교육 한마당 사진전 UCC 공모전 개최 △바탕교육 지도자료 개발·보급 △지역대학과 연계한 바르게 걷기 체험전을 진행합니다. 지역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바탕교육 학부모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도 함께 하고 있어요.



이번 행사는 '바르고 행복한 아이, 바탕교육이 함께 합니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였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바탕교육이 잘 녹아들어 실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글. 서영식 명예기자(국제교육문화신문사 대전지부장)

## 봉사하는 무지개 친구들



무지개 교육지구 학생들이 무지개다리에서 함께 모였다. 지난 10월 28일에 장흥 한국NGO레인보우 청소년 봉사자들이 지난 봉사활동

에 대한 반성과 향후 일정을 토론했기 위해서였다.

장흥군에서는 장흥고와 정남진산업고 그리고 장흥여중, 장흥중 학생들이 한국NGO레인보우(회장 김선영, 장흥지회장 문승욱) 청소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장흥 관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월별로 정해진 봉사활동과 특히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장흥읍 시내를 돌며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플래시몹과 전단지 나누어주며 홍보 활동을 꾸준히 했다.

글. 문승욱 명예기자(부산초 교직원)

## 펭귄마을의 특별한 보물찾기



한국 관광명소 100선 안에 든 펭귄마을에서 특별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광주 근대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남

구 양림동 보물찾기 행사다.

지난 11월 11일 청년단체 청년플러스 주관으로 양림동 곳곳에서 '양림동 예술투어: 보물찾기 시즌 II' 행사가 펼쳐졌다. 이 행사는 양림동의 관광명소 중 일부만 사진으로 보여주면 관광객들이 직접 사진 속의 3곳을 찾아서 찍어오는 미션투어로 진행되며, 미션을 성공한 관광객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준다. 이는 양림동의 다양한 매력을 보물찾기라는 테마를 통해 사람들에게 동심의 추억을 선사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양림동 예술투어는 광주 남구를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남구 관광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글. 김미경 명예기자(광주상일중 영양사)



## 당감초, 함께 놀며 꿈꾸는 영상문화 체험



부산 당감초등학교(교장 구쌍순)는 11월 7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의 전당을 방문하여 '꿈Job기 영상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활동으로 영화의 전당을 견학하였다. 구름다리로 연결된 각 건물을 둘러보며 건축 개념과 규모,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영화의 전당 견학 후 영화 읽기 프로그램을 위해 비프힐로 이동하였다. SF 애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The Iron giant, 1999)를 다 함께 관람한 후 영화 도슨트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며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영화 도슨트와의 만남은 직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해와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영화문화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로봇과 인간 사이의 교감과 우정, 인간성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였던 “넌 네가 선택한 대로 돼.”와 같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글\_ 구영목 명예기자(어린이집 원장)

## “우리 민속놀이에 푹 빠졌어요!”

대경뿌리학교(교장 류우하)에서는 지난 11월 16일 대구왕선초등학교 2학년 4개 반 96명을 대상으로 전래민속놀이 지도를 하였다. 전래민



속놀이 지도를 통하여 올바른 마음 가지기, 바른 자세 갖기, 사회에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전 시민교육을 위해서다. 학급별 교육위원(강사) 2명이 반별로 전래놀이인 비석치기, 바람개비만들며 돌리기, 망줍기, 딱지치기와 제기차기를 4시간 동안 지도하였다. 2학년 차서영 학생은 “떨어뜨릴 때 안 맞는 것을 맞추려고 몸 자세를 비틀고 노력하니 잘 맞았다.”며 즐거워하였다. 배재경 교사는 “오락, 컴퓨터 게임만 하던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동반한 전래민속놀이를 좋아해 뿌듯하다.”고 전했다.

대구경영자총연합회(운영기관) 소속의 대경뿌리학교(참여기관)는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교육연구 분야를 지원한다.

글\_ 김영근 명예기자(퇴직교원)

## 청소년 외교사절단, 독도를 세계에 알리다



인터넷에 독도를 홍보하는 청소년 홍보대사의 다짐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11월 4일 제11기 청소년 글로벌 독도홍

보대사 발대식이 열린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는 비전선포식,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날 발대식은 경상북도와 사이버 민간 외교사절단 반크(VANK)에서 주최하였다. 발대식에는 서류전형을 통해 전국에서 선발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69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독도와 동해에 대한 표기 오류를 제보하고 시정 요청을 하게 된다.


글\_ 신재일 명예기자(학부모)

## 73명 꿈동이 뮤지컬로 끼를 키우다

전라남도 무안 삼향동초등학교(교장 최경아)는 11월 2일 오후 6시 남도소리홀리터에서 학생 뮤지컬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어린이 캣츠' 공연을 가졌다.



이날 공연에는 전교생 73명이 참여하여 무대에 오르고 무안교육지원청 관계자, 무안군의회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해 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삼향동초등학교 학생 뮤지컬은 교육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특색교육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전교생이 공연하는 뮤지컬 공연은 작은 학교 아이들의 희망을 심어주는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다. 

글\_ 신현태 명예기자(노화초 교사)



# 2017년 시도교육청, 이렇게 일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우선 지원, 고교 교육력 제고, 학부모교육 지원, 평생교육 지원,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지원 등 주제별로 교육부-시도교육청-단위학교로 이어지는 교육현장을 조명하였습니다. 이번호에는 2017년 시도교육청 주요사업을 돌아봤습니다.



##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3월, 충청남도교육청은 보령시 오천면 녹도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류찬희(8세)군을 위한 학교(학습장)를 개설하고 부모와 마을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갖고 수업을 시작했다. 학교가 없어 옆 섬마을 학교인 청파초 호도분교에 진학해야 했던 찬희 군의 부모



는 통학할 마땅한 수단이 없자 지난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은 함께 해야 하며, 의무교육 대상자인 찬희를 국가가 책임져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과 보령교육지원청은 심사숙고 끝에 녹도에 순회교육 학습장을 설치하고 옆 섬마을인 청파초등학교 호도분

교의 교사를 녹도에 순회교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의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책무성과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충남도교육청의 철학이 담긴 정책 결정이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정부에서 비용효율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도에서 학교교육을 재개기로 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본질, 마을에서 학교의 역할을 돌이켜볼 때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충남도교육청은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지역과 마을을 살리는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학생 참여 배움 중심 협력학습을 기반으로 한 교실수업의 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위해 단위학교 내의 동교과, 동학년 교사들 간의 자발적인 수업 나눔 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다.

첫째, 수업 개선에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의 자발적 수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 나눔 공동체'를 신청 받아 운영하였다. 교과 단위 580개팀, 학년 단위 377개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수업 나눔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수업 나눔의 날'을 정해 팀 소속 교사의 수업을 서로 참관하며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단위학교의 우수 수업 실천 사례들의 공유와 수업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13개 교육연구회가 참여하는 '2017 중등 수업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교과별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사례들, 수업방법별로 수업 및 평가를 개선한 사례들, 특히 과정중심평



가 우수 사례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밖에도 '중등 수업친구교사제'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단위학교 수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수업 실천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학습지원단'을 조직 운영하는 등 수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 부산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심어주기 위해 제작한 지역 화교과서 '부산의 재발견'이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교재는 △부산 새롭게 보기 △삶의 터전 강바다산 △부산 사람들의 생활 △부산의 힘과 생명력 △희망



산의 역사와 피란민의 애환이 담긴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특히 우리 고장 독립 운동가들의 활약을 소개하며 학생들이 그 정신을 본받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지정학적 부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찬 미래도시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워크북 형식이 가미되었다.

'부산의 재발견'은 부산이라는 지명의 유래와 함께 각 지명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와 지역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담고 있다. 또한 말의 멋과 맛이 담긴 부산 사투리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부

산시교육청은 1년간의 이 교과서 개발과정에 우수교원 9명을 집필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산지역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검토를 거치며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현재 이 교과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교재, 중학교 사회과 수업 보조교재,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자료 또는 보조자료, 중학교 선택과목 등으로 두루 활용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의 모든 고등학교를 하나로 잇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5월부터 세종의 모든 고등학교를 하나로 이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장하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 거점학교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개설하기 힘든 심화과목, 예체능 실기 전공 교과 및 전문 교과를 대상으로 심화 교과와 전문 교과, 예체능 교과를 운영한다. 고급수학, 사회과학방법론 등의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을 확장하여 학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 <학생 맞춤형 진로전공탐구반>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진로전공 학습강좌 개설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인근 대학,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마을교사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힘든 생활과학, 직업교육기초, 상경계열, 자연과학, 공학 등의 진로전공과 관련된 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한다. 2학기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걸어 다니는 속도 제한 표지판 ‘가방 안전덮개’ 호응



경남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가방 안전덮개가 지난 6월에 경남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각

종 방송-언론 매체에 보도되어 전국적인 문의와 사양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가방 안전덮개는 ‘30km 속도제한 표시’가 된 안전덮개를 가방에 씌워 운전자에게 스쿨존에서 안전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의식을 높여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가방 안전덮개를 사용한 아이들이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됐다.

경남도교육청은 가방 안전덮개를 올해 추경예산에 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경남 520개 초등학교 1~4학년 12만 명에게 배부하였고 12월까지 5학년 3만 명과 내년 입학생들에게도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가방 안전덮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안전 분야 최고의 상인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기술성, 활용성, 경제성에서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연수구도서관, 책과 만나는 세계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7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에 “책에서 만나는 세계” 프로그램



이 선정되어 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제결혼과 일반가정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상호문화이해 내용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활동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기획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장소 제공과 홍보를 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총28주에 걸쳐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음식, 옷, 집, 풍습, 도덕, 종교 등) 및 생활방식 관련 도서를 선정하여 빛 그림으로 보여 주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한다. 5~7세 유아들과 엄마가 함께 통합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연수구의 다문화 교육을 위해 도서관만의 특색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원과 참여기회를 제공해 다문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는 학생들이 역사의 주체로서 글로벌 인재로 도약하는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인지 토론하고 안타까운 역사를 통해 꿈을 재정립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의 특색사업이다. 지난 7월 19일 출정식을 갖고 17일간의 동북아 대장정에 올랐다. 이번 여정에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142명, 지도교원 24명, 진로멘토 및 운영요원 35명 등 총 201명이 참가했다. 중국과 러시아, 몽골 3개국을 탐방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존의 길을 모색했던 17일의 여정.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 학생들은 압



록에서 분단의 상처를 만났고 백두산에서 통일의 염원을 담았다. 고달팠던 고려인의 삶을 보듬는 시간도 가졌다. 열차학교에 참가한 한 학생은 “TV에서만 보던 백두산을 눈으로 보는 순간 정말 감동이었다.”며, “1,440개의 계단을 오르는 것은 힘들었지만 안개가 걷히며 백두산 천지가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장정을 마친 학생들은 I-brand 책 쓰기 마무리를 위한 두 차례의 사후 캠프에 참가하였으며, 10월 27일 졸업식을 끝으로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를 마무리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예술교육을 표방하며 학생들의 예술성과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회, 연극동아리, 예술중점학교, 예술교육 거점학교 및 드림학교 운영, 지역 연계 찾아가는 음악회, 예술교구 정비사업 '잠자는 교구 깨우기' 프로젝트, 악기 및 바이올린 에듀터 지원, 초·중·고 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1교 1예술동아리 운영 등은 올해 대전예술꽃정원에서 거둔 뿌듯한 열매라 할 수 있다. 지난 10월 26~27일에는 '누구나 즐기는 감성팡팡 대전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성과 발표기회 및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고, 발표회를 통한 공감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1회 학교예술교육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총94개의 프로그램에 6천여 명의 초·중·고 학생 및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공연, 전시, 체험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생님들을 위한 교사오케스트라단



및 합창단 공연, 예술교육 수업사례 발표, 전문가 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명실공히 학생과 선생님이 다함께 하는 사제동행 학교예술교육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다.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성과 소통·공감 능력 등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예술교육의 꽃을 활짝 피워 나갈 것이다. ㉠

# 키드스케이프(Kidscape) :

## 영국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자선단체

키드스케이프(Kidscape)는 1985년 영국에서 설립된 자선단체로 아동보호, 특히 학교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교사 자문, 교육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학부모 및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키드스케이프(Kidscape)의 목표는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활기찬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행복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학교폭력(Bullying)의 성격

키드스케이프(Kidscape)에서는 학교폭력의 성격을 ① 지속적, 반복적이고 ②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해지고 ③ 힘의 불평등 상태에서 발생하고 ④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강하고,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라고 본다.

1. 일회성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일반적으로 행동 패턴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일회성 사건이라도 너무 심각해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학교폭력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많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당한 심한 굴욕의 경우, 피해 학생은 위축되어 추후 토론이나 사고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다.
2. 상호 충돌(mutual conflict)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참여하였고 권력의 불균형이 없는 의견 불일치, 논쟁 또는 싸움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 피해학생을 위한 프로젝트 'ZAP'

'제압하다'는 의미의 'ZAP'은 9~16세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1일 워크숍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자신감

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모도 자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ZAP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내용
아이들	①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② 학교폭력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기술 ③ 자신감 및 자부심 증진 ④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혼자야 아니야”라는 것을 전달
학부모	① 아이들이 배우는 것에 대한 이해 ② 학교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소통하는 방법 ③ 학교폭력의 영향 이해 ④ 비슷한 환경의 부모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 지지하는 시간 마련 ⑤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며 지지

피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자신감을 기르는 6가지 기술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신감 있게 보이는 몸짓(body language)
- ② 강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기
- ③ 'No'라고 말하기
- ④ 예상하지 못한 반응하기(Fogging) : 화를 내거나 주눅이 드는 등의 예상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대신,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폭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줄이는 의사소통 방법(예, “너는 바보야.”라고 말하는 상대방에게, “그래, 네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겠다.”)
- 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 : 이야기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전달하며 버티고 있는 것. 가해자는 상대가 상처를 받거나 약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여 버티고 있으면 가해자가 괴롭힘을 중단할 수 있음
- ⑥ 'Stop'이라고 말하기



##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확고하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부모를 위한 조언

키드스케이프(Kidscape)에서 부모에게 주는 조언을 살펴보자. 부모는 자녀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받을 영향을 목격하는 것은 부모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확고하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취해야 하는 보편적인 조치가 있다.

### 1. 열린 대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먼저 할 일은 대화이다. 대화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 비공개로 말하기

학교폭력의 여러 유형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 자녀가 그들이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사건의 세부 사항을 당신과 공유하도록 권장하라.

#### 인내하면서, 조용히 이해하기

가정하거나 방해하지 말라. 감정은 제쳐두고 자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

#### 안심시키기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말한 것이 용기있는 행동임을 칭찬하라. 발생한 사안을 알게 되면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라.

#### 지지하고 신뢰하기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자녀와 상의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공개적으로 함께 방법을 찾고, 합의된 행동 방침을 찾아라.

### 2. 피해야 할 행동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격한 감정에 지배받게 된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려면 분노나 추정하지 말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라.

####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학교에 폭풍을 몰아넣거나 가해학생 또는 그 부모와 맞서는 것은 자녀가 걱정해온 반응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 자녀의 경험을 묵살하지 말라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무시하라거나 '성장과정'으로 간주하여 묵살한다면 학교폭력은 멈추지 않는다. 이는 자녀는 학교폭력에 직면하기보다 용인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된다. 학교폭력의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보복을 조장하지 말라

자녀에게 맞서 싸우라고 지시하면 자녀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학교에 문제로 낙인될 수 있다.

키드스케이프(Kidscape)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교사 대상의 학교폭력 개입 훈련(Primary Bullying Intervention Training), 친구들과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을 공유하거나, 함께 자신감을 증진시키며, 학교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에 앞장서도록 Anti-Bullying Champion(ABC) 양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ABC가 되어 학교폭력의 정의와 여러 형태들을 이해하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제3자(또는 방관자)로서의 역할을 실천하고,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다른 친구들이 편안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돕고,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하도록 훈련받는다. ①



# 12월, 한 해 학급살이 마무리 하기

12월은 교사와 학생의 자기점검 시간입니다. 단순히 학급운영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애초의 목표와 계획이 타당했는지, 그와 함께 아이들과 교사 모두 서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가능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올해 학급경영 되돌아보기

12월 마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한 해의 자취를 돌아보는 작업입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날 때 세웠던 학급경영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에 따라 교사와 아이들, 또는 아이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3월에 세운 학급경영 계획서를 펼쳐 봅시다. 올해 우리 반 학급운영의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올해 새롭게 계획한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요일별로 월별로 살펴봅시다. 이를 바탕으로 잘한 것과 꾸준히 한 것, 그리고 문제가 된 것을 나누어 짚 나열해 봅시다.



특히 12월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보인다면, 진단에 따른 학급경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 (1)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아이들, 잔소리가 늘어간다.

교사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첫 단계는 꾸중과 질책이 아니라 좋은 관계와 신뢰의 구축입니다. 이제 겨우 배움에 접어든 아이들일 뿐입니다. 느린 아이들의 행동에 자꾸만 잔소리를 늘어놓게 되면 아이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숨기게 되고, 그들만의 세상으로 달아나고 맙니다. 일반적으로 관계가 좋게 유지되려면 긍정성 대 부정성의 비율이 5:1 정도는 되어야 하고, 관계가 깨가 쏟아질 듯 좋은 '달인'이 되려면 20:1이 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습관'적으로 긍정성을 먼저 보는, 호감과 존중의 문화를 가정이나 학교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12월엔 의도적으로 칭찬 거리를 찾는 일에 나서길 바랍니다.

### (2) 전체적으로 삐걱거린다.

진짜 아이들과 선생님의 성향이 안 맞는 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대부분 교사의 요인, 특히 '학급경영의 지향점을 설정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세워놓은 경우'에서

1. 올해 우리 반 학급경영의 원칙:

2. 새롭게 계획한 것

(1) 요일별:

(2) 월별:

3. 올해 학급경영을 통해 잘한 것:

4. 올해 꾸준히 한 것:

5. 문제가 된 것:

(1) 문제의 원인:

(2) 아이들의 참여도:

(3) 내년에 개선할 지점과 이어나갈 것: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서로를 존중한다.’ 정도의 추상적인 지향점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정한 구체적인 지향점이 게시되어 아이들이 자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향점이 없다면, 아이들도 그저 막연히 생각하고 교사도 즉흥적인 판단을 하며 학급경영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존슨의 T차트를 활용한 사회적 기술 센터를 교실에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실에서 정한 학급경영의 지향점

에 대해 ‘이렇게 행동해요,’ ‘이렇게 말해요’ 라는 항목을 두어 아이들이 직접 구체적인 지향점을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행동을 하거나 좋은 말을 했을 때 게시판의 T차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OO이가 친구의 짓곳은 장난에도 고함치고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반이 가장 원했던 평화로운 반이 되어가는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

### 12월을 의미 있게 보내는 3가지 활동

#### 01 우리 반 10대 사건 연극으로 꾸미기

학기 말 진도도 거의 끝난 이때, ‘우리 반 10대 사건’이란 제목으로 모둠별 연극을 꾸며 보게 해주세요. 그냥 장기자랑으로 꾸미는 시간보다 알차게 학년 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방학이 오기 전에 함께 친구들과 보냈던 일 년을 소중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본을 쓰고, 배역을 정하는 것도 아이들의 몫으로 남겨주세요.

#### 02 우리 반 그림자 퀴즈 대회

한 해를 돌아보며 그동안 찍었던 사진을 활용해 즐겁게 퀴즈 대회를 열어 봅시다. 학급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준비한 후에 한 장 더 복사합니다. 그런 후에 그림판으로 아이들 사진을 까맣게 칠하여 저장하고, 퀴즈로 제시하면 됩니다.



“우리 반 학년 말 포트럭 파티 사진입니다. 가운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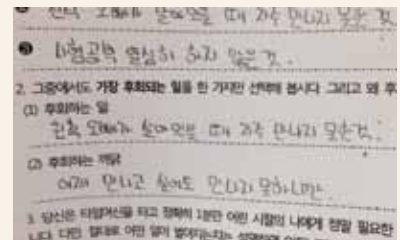
마술을 하고 있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모둠별로 상의한 후에 골든벨 판에 적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 올립니다.”

정작 본인도 답을 틀리는 경우가 생겨서 더욱 재미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래픽 편집 작업이 가능하다면, 포토샵 등으로 배경을 바꿔서 합성한 후에 어떤 장소에서 찍은 사진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미있게 편집하다 한 아이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며 한 해를 돌아보게 해줄 것입니다.

#### 03 타임머신을 타고 1년 전으로 고고!

도덕 시간, 한 해를 돌아보기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3월 2일로 돌아가는 심성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3월 2일 첫날 아이들이 썼던 ‘타임캡슐 학습지’를 돌려주었습니다. 뒷면에 그린 손 그림에 손바닥을 대보더니 손이 더 컸다는 아이가 28명 중에 15명이나~ 그때 친했던 친구와 지금도 친하다는 아이가 22명, 서먹서먹했었다는 아이가 6명, 첫날 세운 3가지 목표를 다 이룬 아이는 6명, 2개를 이룬 아이는 9명…….

나누어준 학습지에 1) 2017년 한 해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 3가지, 2) 그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사건과 그 까닭 쓰기 3) 3월 2일로 돌아간다면 내게 하고 싶은 말을 써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20년 후 33세가 된 미래의 내가 어린 시절의 나, 지금 현재의 내게로 찾아온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라고 부탁합니다.





# 화성에서 온 아이, 금성에서 온 부모

십대 청소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가족과의 갈등이다. 청소년기 부모와의 갈등은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족,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속내를 알아본다.

## 공부 갈등

한국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부모와 진짜로(?) 만난다. 아빠가 의사고 엄마가 교수인 아이는 압박이 심하다. “할아버지도 의사고 아빠도 의사세요. 추석에 친척들이 모이면 종합병원을 차려도 될 정도로 의사들이 많아요. 전 공부를 꼭 잘해야 돼요.” 행복한 고민일까? 유학이든 고액과외든 원하는 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부모의 기대치는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읊시!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는 부모도 있다. “우리 집은 저 때문에 서울로 이사 왔어요. 아빠는 주말 부부 되셨고요. 그런데 공부가 생각만큼 안 돼요. 6등급쯤 돼요. 스트레스 풀려고 주말에 농구를 2시간 하면 엄마가 인생 철학이랑 잔소리를 아동학대 수준으로 해요. 더 해낼 자신도 없는데 저 죽을까요?” 엄마도 아이도 비탈이라는 이 시대에 간신히 서 있는 나무들이다. 안 하자니 갈 대학이 없고, 하자니 너무 치열하다.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부모도 있다. “나는 우리 애한테 공부하란 소리를 안 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꼭 공부에 목을 맬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이는 다르다. “절 맨날 예뻐하시기는 하죠. 하지만 어떻게 공부해서 어디로 가라 하고 챙겨주시지 않아서 광이에요. 저는 누구랑 얘기하죠?” 공부에서 자유로운 듯한 부모도 아이들 말로 하면 가짜 ‘현자 모드(賢者 mode)’다.

## 생활 갈등

아이들은 생활 문제로도 부모와 진짜로(?) 만난다. “우리 애는 컴퓨터를 조금만 한다더니, 하루 종일 웹 소설이나 만화를 봐요. 말이 앞서는 데다 약속도 어겨요.” 부모는 아무진 아이를 원했지만, 아이가 허술해서 못마땅하신가 보다. 아이도 할 말이 있다. “엄마는 ‘네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이지. 하지만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침범하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 태양에 별과 빛이 함께 하듯, 부모의  
사랑에도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그렇지?

할 일 다 해놓고 놀아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토요일 4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할 것 다 해놓고, 컴퓨터를 10시간쯤 했어요. 전 약속대로 한 건데, 왜 놀고 있냐는 말을 들어야 하죠?” 억울하겠구나. 엄마가 약속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가 공부를 더 많이 하기를 원하셨나 보다.

어떤 부모는 ‘우리 애는 자기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꿈만 크게 꾸는 것 같아요, 성적은 형편없는데 00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력은 절대 부족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으니 걱정되네요.’ 한다. 자녀의 꿈과 성적이 반비례할 때까지 부모가 몰랐다는 얘기 같은데, 저녁이면 매일 집에서 만나 서로 의논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어쩌서 화성에서 온 아이와 금성에서 온 부모처럼 서로 모를 수 있을까?

어떤 아이는 ‘저는 왜 남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기회를 박탈당하죠? 뭐 하나 제대로 뒷받침이 되는 게 없어요. 책임을 지지 못할 거면 왜 낳느냐고요. 아, 힘들어.’ 한다. 짝꿍이 방학에 해외여행 갔다 왔다가 룽 패딩을 샀다는 얘기를 하면 들어주기도 힘들겠구나. 그런 것 없어도 된다고 하는 어머니의 철학도 네겐 억지 같겠지.

그런가 하면 서로 화풀이하는 집도 있다. “오늘 아침에 학교 오려는데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싸우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나면 엄마는 나보고 화내고, 나는 애들한테 욕하죠. 첫 시간에 ‘아, 졸려.’ 했더니 반장이 ‘학급 분위기 깨지 마라.’ 해서 ‘네가 뭔데?’ 하면서 싸웠어요.” 학교폭력도 알고 보면 이처럼 원인이 단순할 때가 있다.

**갈등  
해결책**

아이들은 부모에게 뭘 원할까? 필자가 만난 어떤 아이는 핏대를 세우며 말했다. “아, 그거요. 책을 수백 권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애가 자기하고 다르다는 거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려고 주무르지만 않으면 돼요. 그거 하나만 알면 끝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칼릴 지브란이 말한 것처럼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이지. 하지만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침범하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 태양에 별과 빛이 함께 하듯, 부모의 사랑에도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그렇지? ㉞



# 수능 이후 입시전략 노하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연기된 2018학년도 수능이 우여곡절 끝에 11월 23일(목) 치러졌다. 이제 앞으로 수험생들은 수능 이후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수능 이후에 시행되는 대학별고사(논술, 적성, 면접 등) 및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일정을 포함한 모든 대입 전형 일정은 7일씩 순연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능 성적은 12월 12일(화) 발표된다. 정시모집은 2018년 1월 6일(토)에서 2018년 1월 9일(화)까지 3일 이상 원서접수를 받는다. 수험생들은 특히 정시모집 원서 접수 마감시간, 수시모집 대학별고사 시험일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정시모집 전형기간은 가군은 2018. 1. 10.(수)~18.(목)(9일), 나군은 2018. 1. 19.(금)~27.(토)(9일), 다군은 2018. 1. 28.(일)~2. 5.(월)(9일)에 실시된다. 정시모집은 '군'별로 한 개의 대학에만 지원하여야 하며, 한 개의 모집 '군'에 2개 대학 이상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이 금지된다. 산업대, 전문대, 특수목적대, 각종 학교는 '군'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 마지막까지 꼼꼼히 기회를 살피라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은 총원합격 발표가 끝날 때까지 지원 대학의 합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최초합격자뿐만 아니라 총원합격자도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합격했다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하면 정시지원은 불가하지만, KAIST·사관학교·경찰대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 학교는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

대입전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년 2월 추가모집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추가모집 원서접수는 2018년 2월 22일(목)에서 26일(월)까지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가 실시된다. 추가모집에는 수시모집 합격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음),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최초등록 및 미등록 총원과정 등록 포함)는 지원이 금지된다. 단,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다.





표. 일반대학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구 분	2018학년도 (당초)	2018학년도 (변경안)	
• 수시 학생부작성 기준일 • 정시 학생부작성 기준일	• 2017. 8. 31.(목) • 2017. 11. 30.(목)	• 2017. 8. 31.(목) • 2017. 12. 7.(목)	
수시 모집	• 원서 접수기간	• 2017. 9. 11.(월)~15.(금) 중 3일 이상	• 2017. 9. 11.(월)~15.(금) 중 3일 이상
	• 전형기간	• 2017. 9. 11.(월)~12. 13.(수)(94일)	• 2017. 9. 11.(월)~12. 20.(수)(101일)
	• 합격자 발표	• 2017. 12. 15.(금)까지	• 2017. 12. 22.(금)까지
	• 등록기간	• 2017. 12. 18.(월)~21.(목)(4일)	• 2017. 12. 25.(월)~28.(목)(4일)
	• 미등록충원 합격통보마감	• 2017. 12. 27.(수) (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 2018. 1. 3.(수) (합격자 발표 21시까지)
	•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 2017. 12. 28.(목)	• 2018. 1. 4.(목)
정시 모집	• 원서 접수기간	• 2017. 12. 30.(토)~2018. 1. 2.(화) 중 3일 이상	• 2018. 1. 6.(토)~1. 9.(화) 중 3일 이상
	• 전형기간	• 가군 : 2018. 1. 3.(수)~11.(목)(9일) • 나군 : 2018. 1. 12.(금)~20.(토)(9일) • 다군 : 2018. 1. 21.(일)~29.(월)(9일)	• 가군 : 2018. 1. 10.(수)~18.(목)(9일) • 나군 : 2018. 1. 19.(금)~27.(토)(9일) • 다군 : 2018. 1. 28.(일)~2.5.(월)(9일)
	• 합격자 발표	• 2018. 1. 30.(화)까지	• 2018. 2. 6.(화)까지
	• 등록기간	• 2018. 1. 31.(수)~2. 2.(금)(3일)	• 2018. 2. 7.(수)~9.(금)(3일)
	• 미등록충원 합격통보마감	• 2018. 2. 13.(화) (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 2018. 2. 20.(화) (합격자 발표 21시까지)
	•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 2018. 2. 14.(수)	• 2018. 2. 21.(수)
추가 모집	• 접수-전형 및 합격통보마감	• 원서 접수/전형/합격자 발표 2018. 2. 18.(일)~25.(일) 21시 까지	• 원서 접수/전형/합격자 발표 2018. 2. 22.(목)~26.(월) 21시까지
	• 등록기간	• 2018. 2. 26.(월)	• 2018. 2. 27.(화)

기대했던 것보다 수능을 못 본 경우라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수능 최저가 낮거나 없고, 내신 성적이 일정 이상 되면 지원해 볼만한 대입전형들이 있다. 자세한 정보는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정시를 노려라

정시모집 가, 나, 다군을 최종 결정할 때는, 첫째 수능 조건별 자신의 성적의 유효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즉, 표준점수·백분위, 영역별조합, 반영비율, 가중치, 가산점(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탐, 제2외국어 및 한문 등), 영어 성적 반영방법의 유효리를 따져봐야 한다. 둘째, 교차지원을 하는 학생은 교차지원 시 반영 방법과 비율, 가산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배치표는 동일비율을 적용하고 가중치, 학생부 성적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한다. 넷째, 과년도 성적 및 지원결과, 최근 지원 경향을 파악해야 한다. 수시이월인원과 변환표준점수도 반드시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학생부 반영 대학은 학생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재수를 하더라도 지원 경험은 매우 소중한 자산으로 반드시 자신의 점수에 맞는 대학을 지원해봐야 한다. 정시는 고도의 심리전이므로 마지막 날 최종 경쟁률도 중요하지만 첫날, 둘째 날 경쟁률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끝으로, 자신과 가장 궁합이 맞는 수능 영역별 반영영역, 영역별 반영비율, 가산점 등을 잘 따져보면 대학별 환산 점수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찾고 또 찾아보자. 거기에 대학보다는 학과를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요**

# 두 편의 시가 자아내는 애뜻하고 행복한 기억들

글. 홍정선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전 『문학과지성사』 대표)

시에도 냄새가 있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의 냄새가 있다. 박목월의 어떤 시에서는 경상도의 고향 냄새가 나고, 조지훈의 어떤 시에서는 조선시대에 방불한 시간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서정주의 시에서는 신들린 듯한 무당 냄새가 나고, 박재삼의 어떤 시에서는 떨쳐버릴 수 없는 유년기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나는 시들이 지닌 그런 냄새를 맡으며 시를 읽는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냄새를 느끼며 시를 읽곤 한다. 아마도 내가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박재삼의 『추억에서』란 시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이 두 편의 시가 지닌 냄새 탓이다. 이 두 편의 시에서 느낄 수 있는 여성에 대한 냄새가 내 내면에 띄리를 들고 있는 어떤 애뜻하고 행복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이다.

##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의 시

나는 박재삼의 『추억에서』란 시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없이는 읽을 수 없다. 이 시에 나오는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란 구절과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 말없이 글

썩이고 반짝이던 것인가”란 구절을 어머니의 삶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의 감정 없이는 읽을 수가 없다. 박재삼의 시는 어린 자식들을 집에 남겨둔 채 진주장터를 오가며 생어물 장사를 하는 어머니의 고달픔을 그린 빼어난 작품이다. 물고기 행상을 하는 어머니에게 해가 저도 팔리지 않는 고기 몇 마리는 박재삼의 탁월한 표현처럼 그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벌 수 없는 돈, 헤어날 수 없는 가난처럼 보였을 것이다. 또 그렇게 몸부림치다 동동걸음으로 돌아오는 귀갓길은 늘 배고픔에 지쳐 있을 자식 생각에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 말없이 글썩이고 반짝이던” 눈물의 길이었을 것이다.

박재삼이 어머니에 대한 떨쳐버릴 수 없는 기억을 바탕으로 이 시를 썼듯이 나 역시 어머니에 대한 떨쳐버릴 수 없는 기억을 바탕으로 이 시를 읽는다. 나의 어머니는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종갓집의 종부로 평생을 힘들게 살았다. 손바닥의 손금이 모두 지워지고 풀칠한 것처럼 될 정도로 농사일과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에 시달리며 밤낮으로 쉴 틈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어머



시에도 냄새가 있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의 냄새가 있다.  
 박목월의 어떤 시에서는 경상도의 고향 냄새가 나고,  
 조지훈의 어떤 시에서는 조선시대에 방불한 시간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박재삼의 어떤 시에서는 떨쳐버릴 수 없는 유년기의 냄새가 난다.

니가 어느 여름날 저녁 중학교에 다니던 내 손을 꼭 쥐고 했던 말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 “너는 손에 흠 묻히고 살지 말거라”란 당부였다. 박재삼의 「추억에서」를 읽으면 어머니의 그 한스러운 당부와 함께 내가 못마땅할 때 미간을 찌푸린 채 입으로는 미소를 짓던 표정이 늘 함께 떠오른다. 그래서 어떤 뛰어난 교육학자의 훌륭한 말보다도 더 강력한 교육적 효과를 가진 어머니의 그 말 속에서 나는 애뜻하고 행복하다.

### 두 가지 해석을 낳은 여인과 나의 누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을 두고 ‘부덕(婦德)의 화신(化身)’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그런 여인이 아니라 매섭고 단호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떠나가는 사람을 말없이 고이 보내 주겠다는 태도, 떠나는 장면 앞에서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겠다는 태도가 낳은 상이한 해석이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임을 위해 마음이 상할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보는 것이 전자의 해석을 낳았다면, 기정사실이 된 이별 앞에서 과거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태도라고 보는 것이 후자의 해석을 낳은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시를 읽을 때 나의 누이를 떠올리며 그 같은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다른 태도를 지닌 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여자의 두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나의 누이가 직접 보여준 삶 때문이다. 고등학교, 대학에 다니던 시절 고향에 가는 길에 누이의 집에 들렀다가 가는 길에는 안쪽 호주머니에 늘 누이가 나 모르게 넣어놓은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다. 직접 주게 될 경우 내가 느낄 부끄러움을 배려하여 누이는 그렇게 돈을 주고는 했었다.

그런 누이가 10년 전쯤 나에게 자형이 바람피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자신이 안방에서 살겠다고 집으로 찾아온 사건이 있었다고 그 사연을 듣고 안방을 내준 후 겸상을 차려서 한 달을 대접했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신은 불편해서 이 집에 더 못 살겠다, 미안하다고 말하며 떠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애롭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누이가 참으로 강인하고 매서운 면모를 가진 여자라는 사실을 절감했었다.

결혼 초에 마누라가 가끔 장난처럼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어매’라고 대답하여 마누라를 실망시키곤 했었다. 그러다가 어머니님이 작고한 후 한참이 지났을 때 대답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었는지 다시 가장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해온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별 망설임 없이 ‘누나’라고 대답해서 마누라를 크게 실망시켰다. 마누라는 아마도 속으로 나를 유년기에 고착된 구제 불능의 남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문맹에 가까운 ‘어매’와 ‘누이’가 어떤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그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애뜻한 행복에 잠기는데 어찌겠는가! ㉠





눈의 유혹,  
눈썹의 설국과 만나다



눈꽃 트레킹의 명소 발왕산



2018 동계올림픽, 가자! 강원도로 ③



## 평창농포럼

세계인의 축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땅은 우리나라 어디보다 겨울이 눈부신 곳. 평균 해발고도가 700m에 달하는데다 백두대간에 가로막힌 눈구름이 무시로 큰 눈을 쏟아내서다. 더욱이 최근엔 개·폐회식이 열릴 올림픽플라자를 비롯한 평창지역 내 올림픽경기장 모두가 완공돼 축제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다. 잿빛 도시에서 눈(目) 빠지게 눈(雪)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저 말고 평창으로 길을 잡자. 지금 평창 땅에선 겨울이 제대로 환하게 익어 가는 중이다. 간간이 눈 내려 하얗고 찬란하게 펄펄.

### 2018동계올림픽의 주무대, 평창

이제 준비는 끝났다. '하나된 열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시설이 모두 완공됐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금메달 수가 100개가 넘는 이번 대회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다. 때문인지 올림픽을 맞는 국민들의 기대와 설렘이 어느 때보다 크다. 보도에 따르면 평창이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데는 두 가지 이점이 작용했다고 한다. 최적의 자연환경과 콤팩트한 경기장 콘셉트. 연평균 적설량이 210cm에 달하는 평창지역의 특별한 환경이 큰 몫을 한 셈이다. 실제로 평창에선 겨우내 많은 눈이 자주 내린다. 그래서 눈 볼 기회도 많고 눈 속에 폭 파묻힌 풍경도 자주 만날 수 있다.

평창올림픽 경기장은 모두 12곳에 있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플라자를 중심으로 평창, 정선, 강릉 일원에 포진해 있는데, 모두 30분 이내 거리에 있다. 역대 동계올림픽 가운데 경기장 배치가 가장 집약적이란 평가다. 이중 설상과 썰매 종목 7개 경기장이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한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 등 평창지역에 자리 잡았다. 올림픽플라자도 평창(대관령면)에 있다. 올림픽플라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5대 목표인 '경제, 문화, 환경, 정보, 정보통신기술'의 의미를 담아 오각형으로 만든 것이 특징. 개·폐회식에만 활용하고 철거되는 행사 전용 시설이라, 더 오래 눈에 담아야 한다. 현재 관람시설로 인기 고공행진 중인 곳도 있다. 알펜시아의 올림픽슬라이딩센터다. 영화 「국가대표」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스키점프대가 있는 곳으로, 25m 높이의 K98점프대에 오르면,

#### 추천 코스

1day 방아다리약수터 - 점심 - 월정사 - 선재길 - 상원사

2day 발왕산 -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 점심 - 대관령 양떼목장 - 평창송어축제





01



02



03

발왕산과 고루포기산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선수대기실과 스타 트라이인을 잇는 통로도 명물이다. 눈이 쌓이지 않도록 격자 철근으로 제작해 통과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 뚱다. 열차(KTX 경강선)로 올림픽경기장을 찾을 경우 발을 딛게 되는 평창역과 진부역도 SNS에서 화제다. 특히 스키점프대를 형상화한 진부역이 인기다. 서울에서 진부역까지는 KTX로 1시간 20분가량이 걸린다. 평창이 부쩍 가까워졌다.

1 Day

‘눈의 전설’과 마주하다

순백의 설국만큼 사람을 유혹하는 것도 없다. 물론 북풍한설을 피해 따뜻한 해외로 날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설국으로 변한 평창 땅을 밟지 못한다면 이 땅의 진동(眞冬)을 경험했다 할 수 없다. 첫날은 그런 진동을 만나러 오대산으로 들자. 오대산 자락엔 도반과 함께 기분 좋은 향기를 내뿜는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숲길이 있다. 방아다리약수터와 월정사로 드는 숲길이다. 겨울이면 적막이 가득 고여 출렁거리는 이 숲길들의 주인은 검게 푸른 전나무다. 이 숲이 폭설에 폭 잠기는 날이면, 풍경은 더 깊은 고요에 잠겨 발자국 소리만으로 빛난다.

방아다리약수터부터 찾는다. 진부IC에서 20여 분 거리에 있는 방아다리약수는 철분, 라듐, 구르산 등이 다량 함유돼, 위장병과 신

경통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이다. 겨울철엔 철분 함량이 더 많아져 물을 길러 오는 여행객이 적지 않다. 물도 물이지만 이곳의 명물은 단연 전나무숲길이다. 매표소에서 약수터에 이르는 200m의 오솔길을 따라 키 큰 전나무들이 빼곡하게 도열했다. 월정사 전나무숲길에 비해 길이는 짧지만 폭이 좁아 더 깊고 아늑하다. 산길을 걷는 수고 없이 단번에 당도해 쉽게 둘러볼 수 있는 것도 매력. 지난해 8월에는 밀브리지가 들어서 실 곳도 마련됐다. 이곳 카페에서 적막에 잠긴 숲을 보며 커피 한 잔의 낭만을 즐기는 것도 좋다.

방아다리약수터에서 오대산 더 깊은 골로 들면 월정사다. 신라시대 고찰인 월정사는 오래 깊이 묵상하기에 좋은 곳이다. 특히 일주문에서 월정사 경내에 이르는 1km가량의 전나무숲길을 걸어 절에 닿는 시간이 백미다. 눈 내린 직후라면 적막이 숲을 가득 채워 스스로의 마음 안에 잠기기 더 좋다. 그냥 무심하게 걷는 듯 마는 듯 걸어도 마음에 담기는 감흥이 차고 넘친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지나 절에 닿으면, 세상은 고요 속에서 막 빠져나온 듯 청아한 소리로 환하다. 월정사 경내에 있는 팔각구층석탑이 내는 소리다. 땡그랑 땡그랑~, 지붕돌의 추녀 끝마다 풍탁이 달려 있어 은색의 눈바람이 불 때마다 고운 소리가 한 아름씩 쏟아져 나온다. 가만히 서서 듣고 있노라면 속진(俗塵)이 씻기는 듯 마음에 평안이



깃든다. 월정사의 겨울은 눈으로 보건 귀로 듣건 그렇게 찬란하다.

이맘때는 상원사도 놓칠 수 없다. 국내 문수신앙의 중심지인 상원사는 동종과 목조문수동자좌상이 보존된 절로, 월정사에서 선재길을 따라 8.1km 가량 걸으면 된다. 계곡을 끼고 흐르듯 이어지는 눈꽃터널이 전나무숲길과는 또 다른 풍치로 마음에 담긴다.

## 2 Day

### '꽃밭보다 눈부신' 눈밭

이튿날엔 대관령 주위를 휘돌자. 평창동계올림픽의 주무대인 횡계(대관령면소재지)가 중심이다. 해발 832m의 대관령을 지붕 삼고 있는 횡계는 눈이 자주 많이 내려 눈 없는 날이 적은 곳. 이곳에 '게으른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눈꽃 명소'가 있다. 발왕산이다. 발왕산은 선자령과 함께 눈꽃 트레킹 명소로 알려진 곳이지만, 특별히 오랜 등산을 하지 않고도 웅장한 백두대간의 설경을 볼 수 있어 인기다. 곤돌라 덕분이다. 용평스키장에서 곤돌라를 타고 20여 분을 오르면 발왕산 9분 능선에 있는 드래곤피크에 닿는다. 이곳에서 능선을 따라 10분쯤을 더 오르면 발왕산 정상(해발 1,458m). 주목 군락 뒤로 산이 펼쳐지고, 그 산 뒤로 다시 산이 겹겹이 늘어서는 자리라, 어디서보다 눈부신 눈꽃을 시원한 조망으로 만날 수 있다.

횡계에서는 대관령 양떼목장도 필수다. 면양 200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 이곳은 눈 덮인 구름들이 연출하는 풍경이 인상적인 곳이다. 마치 핫카이도 비에이의 설경지대를 보는 듯 설경이 동화 같다. 산책 포인트는 귀틀집이 자리한 구름 정상부와 '바람의 집'이라 부르는 목장의 정상지대. 구름에서는 귀틀집 안에 있는 비료포대며 엉덩이썰매로 눈길을 달리는 스틸을 맞볼 수 있고, 목장 정상부에서는 목장을 비롯한 횡계 일대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두툼한 눈-이불을 뒤집어 쓴 듯 풍경이 안온해 어쩐지 추위가 덜한 느낌이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축사에 있는 양들에게 건초를 먹이는 체험도 특별한 재미다. 건초를 내밀면 양 몇 마리가 울타리로 다가와 눈을 맞춰볼 수 있고, 가볍게 등을 쓰다듬어 볼 수도 있다.

평창을 떠나오는 길엔 송어축제장에도 잠시 둘러보자. 송어 얼음낚시를 비롯한 송어 맨손 잡기 등 다양한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송어 얼음 낚시'와 '송어 맨손 잡기'. 두 겹께 언 오대천의 얼음벌판에 구멍을 뚫고 앉아 송어를 낚는 재미나, 차가운 얼음물에 화끈하게 들어가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재미가 기대 이상으로 흥미진진하다. 올해 축제는 12월 22일부터 익년 2월 25일까지 오대천 둔치에서 열린다. ❷



04



05

- 01 신라시대 고찰 월정사
- 02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 03 오대산 방아다리약수터
- 04 대관령 양떼목장
- 05 평창송어축제 얼음 낚시

### Travel Tip



평창을 대표하는 별미는 황태요리와 산채정식이다. 황태요리의 본산은 대관령면소재지. 용평스키장 가는 길목에 있는 황태회관(033-335-5795)과 황태덕장(033-335-5942)이 찾는 사람이 많다. 횡계로터리 근처에 있는 납작식당(033-335-5477)도 대관령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맛집. 오삼불고기의 칼칼한 고추장 양념 맛이 좋다. 월정사 인근에서는 산채정식이 별미다. 진부 시내에 있는 부일식당(033-335-7232)과 월정사 상가단지엔 비로봉식당(033-332-6597)이 반찬 많고 맛있는 산채정식 집으로 유명하다.

# NEWS BRIFFING



## 우리나라 학생의 협력적 문제해결력은 최상위 수준

표. PISA 2015 협력적 문제해결력 상위 5개국 결과

국가명	평균 점수	예측값에 대한 상대적 성취*	95% 신뢰수준 모집단 평균 점수	순위	
				OECD (32개국)	전체 (51개국)
싱가포르	561	16	559 - 564		1
일본	552	23	546 - 557	1	2
홍콩(중국)	541	15	535 - 547		3~5
<b>대한민국</b>	<b>538</b>	<b>20</b>	<b>533 - 543</b>	<b>2~5</b>	<b>3~7</b>
캐나다	535	10	531 - 540	2~6	4~10
OECD 평균	500	3			

\* 실제 협력적 문제해결력 점수 : 읽기, 수학, 과학 점수를 바탕으로 예측된 협력적 문제해결력 점수

그림. 단위문항의 마지막 장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 2015 협력적 문제해결력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PISA 2015에서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평가와 더불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의 하나인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혁신 평가영역으로 추가해 최초로 평가했다. 협력적 문제해결력이란 컴퓨터상의 가상 팀원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지식, 기술, 노력을 끌어내고 이해와 노력을 공유하는 과정에 효과적으

로 참여하는 한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 결과, PISA 2015에 참여한 52개국 중 우리나라 학생들은 평균 538점을 얻어 OECD 참여국 중 2~5위, 전체 참여국 중 3~7위로 최상위 수준의 성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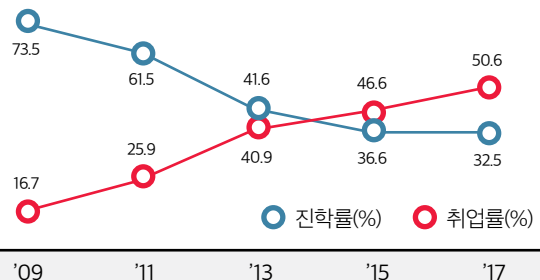
이는 읽기, 수학, 과학 점수를 바탕으로 예측한 기대 점수보다 20점 높은 값으로, 다수의 주체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학생은 1수준 이하(하위 수준)의 비율이 매우 낮고, 4수준(상위 수준) 비율이 높지 않아, 중상위권 비율이 높은 성취 특성을 나타냈다.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17년 만에 50% 넘어

교육부는 11월 20일 '17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을 발표했다. 이번 취업률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예 종합고 전문반)의 2017년 2월 졸업자 취업 현황을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17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50.6%로 '00년 51.4% 이후 17년 만에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률이 최저점을 기록했던 '09년 16.7%를 기점으로 8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고졸취업문화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학교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93.0%, 특성화고 50.8%, 일반고 직업반 22.4%로 나타났다.

[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 취업률 및 진학률 추이 ]



### 자유학년제, 내년부터 희망학교 1,500여 개교에서 시작

교육부는 지난 11월 6일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한 학기로 운영해 온 자유학기는 내년에도 한 학기를 기존과 같이 전국의 3,210개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한다. 또한, 시안을 바탕으로 학교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내년에 전체 중학교의 약 46%에 달하는 1,500여 개교에서 자유학기를 1학년으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를, 약 500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 이후 연계학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에 참가하는 중 1학생들의 교과 내신 성적을 고입전형에 미반영하는 사항을 내년 3월에 조기 예고할 예정이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본격 도입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고 자 하는 성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직무 능력을 선택하여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노디그리는 미국 온라인 공개강좌(MOOC) 기업인 유다시티(Udacity)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6개월 내외로 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 새로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분야로는 정보통신(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운송(연료전지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등)이 개발될 예정이며, 참여하는 대표기업이 핵심직무를 개발하고, 최종 평가방식을 개발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핵심직무별 참여 교육기관을 확정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학습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1차)를 오는 12월 12일(화)까지 실시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24시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12월 12일(화) 마감 당일은 오후 6시까지 접수된다. 현 고3이나 재수생 등 '18학년도 대학 진학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생은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을 위해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재미있고 유익한 진로체험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례별 중요 안내사항 등을 담은 안전교육 콘텐츠 4종을 개발해 11월 21일부터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콘텐츠는 애니메이션, 웹툰, 카드뉴스, 게임 형태로, 진로체험 사전교육 및 진로수업 등 다양한 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콘텐츠 4종을 모두 활용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아울러, 이번에 개발된 콘텐츠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및 교사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콘텐츠는 교육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인 '꿈길' 누리집(www.ggoomgil.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11월 14일 세계당뇨의 날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보호대책은 '소아당뇨 어린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및 보호인력 확충,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보호활동 지원,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확대, △소아당뇨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을 4대 개선방안으로 설정하고 총 14개 개선조치 사항을 마련했다. ㉠





### 행복한 교육 웹진에는

- ✓ 정확하고 깊이 있는 **교육정책**
- ✓ 교육철학이 담긴 선생님의 이야기 **'삶과 교육'**
- ✓ 우수학교 탐방기 **'꿈이 영그는 현장'**
- ✓ 수업명사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이런 수업 어때요'**
- ✓ 학급운영의 노하우가 총망라된 **'학급경영 노트'**
- ✓ 새로운 교육이론을 한걸음 먼저 만나는 **'교육논단'**

정확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 ★ 구독신청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행복한 교육』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 이벤트 01

### 『행복한 교육』 열혈 독자를 찾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열심히 읽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열혈 독자 이벤트에 응모해 주세요. 『행복한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교육정책이 있으면 3줄 이내로 사연을 올려주세요.

#### 이벤트 02

### 『행복한 교육』 서포터즈를 찾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널리 알리는 서포터즈로 활약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서포터즈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행복한 교육』을 소개하거나 기사를 링크한 화면을 캡처해 올려주세요.

매달 20일까지 '행복한 교육(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 11월호 이벤트 당첨자

김진석(경기 오산시) 목현정(강원 춘천시) 박준수(강원 원주시)  
박지영(부산 북구) 전정희(부산 서구) 최용준(대전 유성구) 님  
축하드립니다.



**발행일** 2017년 12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편집인** 대변인 주명현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기수  
교육연구사 김지선 김지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80, 6242

#### 편집실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최원석 이대원  
**디자인** 김수지  
**영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종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가격 1,700원

#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혁신을 말하다"

## 2017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공감 콘서트

☆ 대상 : 해당 시도교육청 초중고교생을 둔 학부모, 교원 등

☆ 일정 : 2017년 11월 ~ 2018년 1월 (7회)

경기 11월 24일(금)/ 일산 킨텍스

광주 11월 30일(목)/ 광주교육연수원

충북 12월 04일(월)/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전북 12월 11일(월)/ 전대학술문화관

충남 12월 18일(월)/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대전 12월 22일(금)/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경북 2018년 1월 18일(목)/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 행복한 교육

# 명예기자 성과발표회

- HAPPY EDU 오늘, 그리고 내일을 향한 도약 -

교직원, 학부모, 대학생 등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를 모시고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일시** : 2017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 대전 인터시티 호텔(라벤더홀)

